

제 4 장

노동사목위원회의 도약

(1987 ~ 1997년)



✱ 제1절 민주화선언 이후의 시대상황

1. 정치의 민주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논의되던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4·13호헌회귀로 무산위기에 처하였다. 분노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호헌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의 6·29선언, 전두환 대통령의 7·1담화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0월에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를 표방한 노태우정권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수구적인 조치를 계속하자, 1988년 4월의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었다.

3당합당으로 대통령후보가 된 김영삼이 1992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군사반란을 심판하고,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의 반민주적 세력을 청산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는 동시에 복지수준을 제고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도입된 6·27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1996년의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과반수의석에 실패하였다.¹⁾ 더구나 정부주도형 국가경제체제는 글로벌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상실되어 IMF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폐업되고, 산업과 인력구조조정으로 실직자를 양산하여 결국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2.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상황

1989년 이후 수출과 제조업 성장이 크게 둔화되자, 그간 부진했던 기술개발 투자노력과 급격한 임금상승 등이 맞물려 경제불황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약 3년 동안 800~1,000만 명에게 새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내수확대정책을 채택하여 각종건자재 값과 건설인력

1) 허영, 한국헌법론(전정3판), 박영사, 2007, 127~128쪽 참조.

임금이 폭등하면서 서비스부문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3D업종기피 현상이 심하여졌다.

1990~1991년에 9%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 내수확대에 따른 초과수요, 건설인력난에서 촉발된 임금상승 등으로 인플레이가 가중되고 경상수지적자가 커졌다. 1973~1981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이던 것이 1988~1991년에 7.1%로 증가하고, 1988년 145억 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1991년에 83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1991년 초부터 경기안정화를 시도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지만, 1992~1993년에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렀다가 1993년에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1995년에 엔고현상으로 수출증가가 가속되면서 1994년 8.3%, 1995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6년 경상수지적자가 230억 달러로 GDP의 4%를 초과하였다.

1996년부터 기업이 연쇄도산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가 경제전면에 노출되고, 1996년 말 노동법파동 이후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국제경쟁력 약화, 채산성 악화로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연속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부도급증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1996년 4월, 부도유예협약을 실시하였으나, 금융기관 부실화 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내몰았다.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켰고, 문민정부 말기의 정책추진능력 상실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실물경제의 침체와 경제운영 미숙은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1997년 8월에 태국,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동남아 외환위기와 국내경제의 신인도하락은 국내 종금사가 해외에서 빌린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 거부로 이어졌다. 이는 종금사들이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국내외환 시장에서 달러매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원화환율의 급속한 상승과 달러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통화당국이 과도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국내보유 외환을 소진시켜 대외지불능력의 상실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금융을 요청하였다.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1987년 6월 이전까지 노동조합 2,700여 개, 총 조합원 105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 단위 노동조합 7,800여 개, 조합원 19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임금인상과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중심으로

투쟁하였다.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는 식으로 투쟁하였는데, 경찰 투입, 주동자구속 등이 사라지면서 임금인상요구는 상당부분 관철되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3저호황'으로 기업들의 지불여력이 뒷받침되어 1989년까지 임금인상이 계속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지역연대를 모색하여 1990년 1월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전노협은 한국노총의 협력적인 노동조합운동노선과 비민주적인 조직운동을 비판하며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투쟁적인 노동조합활동노선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전노협이라는 양자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6·29민주화선언 이후 노사갈등이 3,749건으로 급증하고, 1988년에 1,873건, 1989년에 1,616건이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노사갈등으로 노사관계도 협력적인 성격에서 대립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전노협 소속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나타난 사업장은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임금교섭시기마다 파업과 징계, 해고 등이 악순환되었다.

1990~1992년은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지만 경상수지 적자, 물가불안, 부동산가격폭등 등 경제불안요인들이 나타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실물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기업들의 지불여력을 위축시켰고,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인상요구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정부는 노사분쟁에 공권력개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였다. 정부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노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의 연합조직이 결성되어 사무전문직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업종회의'와 대기업노동조합들의 연합체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 대기업노동조합 연대조직이 결성되는 등 민주노동조합진영의 외연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조합 억제정책에 맞서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에 나섰으며, 1993년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결성하고, 1995년 11월 11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모습이 드러났다. 1987년 이전의 강압적 노무관리 방식과 달리 종업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와 연동된 보상제도 등을 통한 간접포섭전략을 채택하였다.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 정규직 고용회피와 비정규직 사용, 직무직능급제도 도입, 다기능공 양성, 현장중심 노무관리, 노동자 해외연수와 기업문화운동 등 다양한 인사관리방식과 결합하는 신경영전략은 직접통제보다 노동조합약화, 노동자포섭이라는 포용전략을 사용하였다.

1990~1995년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안정화를 축으로 노사관계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사단체교섭은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되고, 사용자의 신경영전략을 노동조합이 반발하여 노사관계의 대립적 성격이 고착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1996년에 노사부문으로 확대되어 5월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노사단체와 정부, 공익대표가 참여하여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논의하였다.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고,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을 전후해 국내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제기되었으며, 사용자들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4. 노동관계법제

1987년 11월의 제8차 개정헌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유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단체행동권의 제한범위를 축소하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허용하였다. 같은 해에 노동관계법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추구하여 평등관련 입법의 모태가 되었다. 노동보호를 강화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보장을 강화한 최우선 임금채권변제 신설,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형근로제가 폐지되었다.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조합에 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자유설립주의로 전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과 결의의 취소·변경명령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한정하고, 변경·보완·시정만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조합 해산과 임원개선명령권을 폐지하고, 단체교섭권 위임제한을 삭제하였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노동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 유니온숍제도를 부활시켰다.

노동쟁의조정법은 공익사업 범위축소, 임의조정제도 신설을 통한 자주적 조정절차 권장, 쟁의조정에서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였던 알선기능을 다시 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복귀, 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냉각기간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단축하고,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15일, 긴급조정 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20일로 단축하였다.

노사협의회법은 협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자 위원의 결격사

유조항,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권, 협의회의 해산권 등을 삭제하였으며,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을 추가하였다. 노동자위원 선출에서 공정성 제고와 불이익처분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규정 신설,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시정명령과 이를 위반할 때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1988년 12월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1989년 3월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부당해고·휴직·정직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신설 등 대폭 개정하였다.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다.

대량실업에 대비하고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려고 ‘고용정책기본법’(1993년), ‘고용보험법’(1993년)을 제정하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1993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결정일을 매년 8월 5일까지 변경하고, 최저임금안 제심요청기간을 10~20일로 조정하였다.

1996년 12월 말, 근로기준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와 근로시간 탄력화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여 노동3권 행사의 보장·확대를 도모하였다.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보고사항과 협의사항 외에 합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되 상급단체는 2000년부터,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절차는 2001년 말까지 강구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계의 총파업이 장기간 계속되어 1997년 3월 10일에 여야합의로 새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새 노동법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경영이유로 해고하는 것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체근로, 노동쟁의 조정기간,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노동조합활동의 제약요소를 삭제·축소했다. 특히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상급단체의 경우 3년, 단위사업장에서는 5년간 유예하도록 한 것을 상급단체의 경우에 유예기간을 폐지하였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내실화

1. 노동관련 현안쟁점 학습·논의

1987년 9월 초에 명동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이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와 함께 ‘민주화와 관련한 노동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노동계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나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수정·보완되어야 하는지 재확인하였다.

1988년부터는 매년 초에 전년의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그 해의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노동사목위원회 신년모임이 출발되었다.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3월의 첫 번째 발제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노동관련 주제들을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이 임금인상 관련 노사분쟁 등 현안쟁점을 논의하였다. 11월에 ‘용공, 좌경시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대한 올바른 고찰’이라는 주제로 주수욱 신부가 강의하였다. 노사관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과 교회의 노동사목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였다.

1989년 정초에 김말룡 소장이 노동법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전망하였다. 노동관계법 규정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노동운동의 변화방향도 점검하였다. 3월에 ‘산업재해의 현황, 관련제도 및 대책’에 대하여 김말룡 소장이 강의하였다. 산업재해 현황을 점검하며,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5월에 산재사고의 사례발표와 함께 산업재해 노동자 배경과 목적, 산업재해와 산재노동자 등의 발제를 듣고, 진폐 등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최소화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 등을 논의하였다.²⁾

그 해 11월에 ‘1990년도 노동운동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김말룡 소장이 특강을 하였다. 노동계의 상황분석과 함께 ‘교회는 현 노동계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모임의 침체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민주성

2) 자세한 내용은 제9절 산재사목 참조.

향인 노동조합의 법적규제의 부당성과 교회의 기본입장을 논의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1991년 1월에 ‘1991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말룡 소장이 특강을 하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였다. 추가논의사항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운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9월에 박영기 교수의 발제로 ‘ILO 가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통하여 ILO에 가입하는 데 따른 의미를 분석하고 노동운동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칠 과급효과를 점검하였다.

1992년 5월에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창동노동문제상담소 실무자 김주철이 노동부지침인 ‘수지접합수술의 인정기준’을 소개하고, 빈발하는 산재사고대책을 마련하도록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백월현이 대책의 중요성이 제고되는 이주노동자 상황을 보고하여 노동사목위원회가 이주사목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1993년 7월에 박영기 교수가 세계 노동조합의 동향과 문민정부의 노동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각국 노동조합의 증가 또는 침체경향을 분석하고, 대립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정착방안을 논의하였다.

1994년 3월에 박영기 교수가 발제한 ‘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Globalization과 국제화를 중심으로’를 논의하였다. 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 노동계의 움직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5월에 김말룡 국회의원이 ‘1994년도 노동계 상황과 전망—ILO의 노동법 개정 요구, 블루라운드와 노동’을 특강하였다.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노동법 개정요구가 거세지고 블루라운드까지 맞닥뜨린 노동계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프라도수녀회 정영수 수녀가 국제어린이사도직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고 논의하였으며³⁾, 7월에 노동장년회와 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가 ‘21세기를 향한 사회환경 가톨릭 액션의 활동범위와 방향 그리고 노동계 안에서 대중운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관계, 이주노동자 산재적용 문제도 논의하였다.

1995년 정초에 김말룡 국회의원이 ‘1995년 노동계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실패와 이에 대응하는 제2노총결성 움직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기조변화와 각종 대응경향 등을 논의하였다.

3) 자세한 것은 ‘제7절 국제어린이사도직’ 참조.

1996년 1월에 김말룡 국회의원이 ‘1996년도 노동계 상황—선거와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5월에 ‘이주노동자 보호법 개정작업 및 신 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건의서’를 논의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서 그 곳 노동사목 활동가들과 관계하고 경험한 노동사목위원회 연구원 이진이 그 동안의 상황을 발표하였다.



박영기 교수

1997년 1월에 박영기 교수가 ‘바람직한 노동관계와 향후 전망—노동법 개악 이후 정국상황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5월에 ILO에서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을 지적한 문건을 소개, 검토하고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대한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9월에 ‘1세기 아시아교회 콜로퀴움(COLLOQUIUM)에 대한 보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강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경제세계화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또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박영기 교수가 특강하였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동사목방안을 모색하였다.

2. 교회의 가르침 학습 · 논의

1988년 5월에 도요안 신부가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을 특강하고, 9월에 ‘윤리 가치관의 혼란과 그 극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최창무 주교가 특강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 신앙인의 자세를 숙고하였다. 1989년 7월에 김현배 신부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해설하였다. 1990년 3월에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 역사’라는 주제로 황상근 신부가 특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연혁적 흐름 내지 변화과정,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침체원인을 분석하고 지도신부와 회원의 관계 등 활성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3.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1) 민주화 촉구 건의문

1987년 9월 25일에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6·29선언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민주화조치를 시행하기는커녕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노태우정권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조속하게 민주화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건의문은 노동계와 양식있는 시민단체, 교회가 노사관계에서도 민주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노동자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탄압일변도의 노동정책을 계속하는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이들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더욱 넓은 영역에서 석방·사면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화해되기를 바랐다.⁴⁾

2) 노동법 개정요구

6·29선언 이후 노동계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졌으나, 정치권의 응답은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노동계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는데, 정치권이 결단을 계속 미루어 노동계가 계속 이 문제를 압박하였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역시 결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노동사목위원회의가 1987년 9월, 사목교서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에 대한 본당 차원의 관심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각 본당 지역 내의 노사분규와 노동쟁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본당신부 주관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교구장의 사목지침 혹은 사목서한을 반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

3) 평화신문·평화방송 사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989년에 발생한 평화신문 사태를 비롯하여 인천교구 신부·평신도 폭행사건, 울산 현대사태 등 노동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노동사목위원회의 목적·활동

4) 부록 3에 전문 수록.

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9월 1일자.



평화방송사태 보도(기자협회보)

등을 재검토하였다. 즉, 교회가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자행되던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평화신문 사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사목위원회가 있으므로 평화신문 사태에 대한 중간역할을

기대했을 터인데, 교회에서 발생한 노동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의 입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신문 사태는 노동사목위원회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평화신문 사태가 단지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닌 반가톨릭적인 문제로 편집권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평화신문은 교회신문이고 교회 가르침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기자들이 이를 견지할 수 없다면 굳이 교회가 신문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교회지도자들과 대화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정리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는 김수환 추기경과 평화방송 사태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보도제작권,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한 교회와 노동조합의 입장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사목위원은 교회 내 언론통로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언론계의 흐름인 편집권의 자율성 인정, 선교를 통한 복음화에 대한 부합성, 소 취하를 통한 구속자 처리문제 등 사후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노동현장』에 기초한 사태해결 촉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교회의 아량 등을 촉구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보도제작권에 얽힌 평화방송 사태와 관련하여 평화방송이 교회방송이므로 경영자의 조치를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노동조건이나 처우개선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방송을 이끌어가고 교회는 재정만 뒷받침한다면, 교회의 사명인 선교방송을 못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소를 취하하면 해고가 철회되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평화방송이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는 재정적·정신적으로 손실이 컸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운동권처럼 방송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당초 평화방송이 시작될 때 우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로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풀어가기 어렵지만, 보수적인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진보적인 것만이 옳고 앞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운동권들의 활동이 바람직하고 좋은 면도 있으나, 이들이 교회를 장악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평화방송 사태의 발단은 노동조건이 아닌 정신문제라고 보았다.⁶⁾

4) 철도·지하철(전기협) 파업사태

1988년 7·2기관사파업 실패를 계기로 1989년 5월 15일에 설립된 전국기관차분회장협의회가 1993년부터 진행된 변형근로시간제 철폐, 8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을 내걸고 1994년 6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와 연대하여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를 결성하고 전면파업을 시도하였다.

김영삼정부가 6월 23일 4시, 전국철도노조 기관차지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자,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기관사를 포함한 관련 운수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앞서 6월 14일부터 서울지하철, 6월 25일부터 부산지하철이 연대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김영삼정부의 노·경총 합의에 기초한 무분규 원년시도를 무색케 하였다. 6월 27일부터 조계사에서 사태수습을 위한 전기협지도부의 장기농성이 시작되고, 7월 27일에 파업의 거점이었던 기독교회관에 공권력이 투입되기까지 명동대성당에서 지하철 노동자 20여 명이 농성하였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였기 때문에 6월 23일 새벽에 전기협노동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구요비 지도신부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 구요비 신부가 전기협의 상황을 정부에 보고하여 철도파업에 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무산되었다. 구속된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은 다락방팀 이철희, 미리내팀 이상록이고, 수배자는 서선원이었다.

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5월 4일자.



지하철노조 명동성당 점거농성

전기협과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기로 사전에 결정하였으나, 궤도노동자인 이들은 연대할 수 있으므로 전기협의 파업에 대한 동조파업 결의는 당연하였다. 정부는 수배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군인을 투입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장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재야원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핵심내용은

선 복귀, 후 협상이었고 파업을 철회할 경우 전기협, 지하철 노동자들을 뒷받침하겠다는 말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파업노동자들이 복귀한 이후 서울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노조원들과 대화나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중징계와 고발을 남발하여 김수환 추기경과 원로들의 공동성명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교회가 파업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 조합원 중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이 있었지만,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보았는지, 농성과정에 교회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는데도 결국 막바지에 교회로 문제가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노동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였다. 변형근로제, 기관사들의 월급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의 이해가 어려웠다. 아울러 전기협 비대위가 노동사목위원회에 중재단 구성과 협조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노동사목위원회가 해결사는 아니지만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는 표지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왜곡된 언론매체의 부당성에 대응하고,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 사건으로 60명이 파면 또는 해고되고, 그 중 28명이 구속되었다가 9월 15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조계사에서 농성하였던 서선원 위원장과 6명은 당시까지 구속 중이었다. 철도가족모임은 초기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사무실에서 회합하였는데, 그 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 계속하였다. 추석을 전후하여 노동사목위원회가 구속자가족돕기기금과 교회어른들의 도움으로 구속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격려금을 지불하고, 이철의가 석방되자 다락방팀이 9월 28일에 함께 회합하였다.⁷⁾

5) 1995년 공노대 사태(명동성당 농성과 공권력 투입)

1995년 5월, 한국통신이 유덕상 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 60여 명을 해고하고, 김영삼정부는 국가전복 저의가 있는 불법행위로 단정하여 제압코자 하였다.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통신 개방 반대,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건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주요간부들의 구속과 수배에 맞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였으며,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7월 24일에 파업을 결의하였으나, 국가기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7월 30일에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였다.

1995년 5월 28일자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최창무 주교를 위시하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와 명동대성당 사제단이 공동으로 한국통신 노사에게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관용과 인내를 촉구하고, 노동조합도 적법한 절차와 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⁸⁾

6) 1996년 공노대 사태(명동성당 점거 농성)

1996년에 공노대 사태가 발생하였다.⁹⁾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협의회는 사업장마다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달랐는데, 개별사업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갖고 범외노조인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명동대성당에서 농성하였으며, 명동대성당을 점거한 이들은 사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명동대성당에 요청하거나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여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

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7월 14일자; 9월 29일자.

8) 부록 3에 전문 수록.

9) 1995년 11월에 전국 중앙조직으로 출범한 민주노총이 1996년에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분신자살한 노동자들의 장례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고,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전면파업을 벌인 MBC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1996년 임금투쟁을 시작하였다. 1994년의 전기협·전지협 파업사태를 계기로 신규대공장 민주노조로 확산된 파업열기는 한국통신과 조폐공사 등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이어졌으며, 1994년 11월 4일에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회의’가 결성되었다. 공노대는 1996년 3월 23일에 ‘노조탄압 저지 및 96년 입단투 완전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전국지역의보, 부산지하철, 조폐공사 등 공공 5개사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월 20일,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에서 쟁점사안이 해결되고, 부산지하철과 의보노조의 교섭도 타결되었으며, 전임자 축소문제로 대립된 조폐공사 노조만 고립되면서 공노대 사태는 점차 마무리되었다. 특히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와 5월 9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과 타결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1996년 5월 15일에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10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문민정부의 ‘신 노사관계구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제의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였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였다.¹⁰⁾

7)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1996년 12월 27일에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사태에 대하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의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동선과 보조성의 원리 등 사회교리 차원에서 사회 각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절차와 내

용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를 권고하였다.¹¹⁾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사회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자 1997년 1월 10일에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무리한 공권력 발동으로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윤만을 앞세우는 사용자와 강경투쟁 일변도인 노동계에 대해서도 상호이해와 인내·자제를 촉구하였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집권층이나 기타 사회주체들이 이 대화와

10) 부록 3에 전문 수록.

11) 부록 3에 전문 수록. 이 성명서는 이른바 ‘3금(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에 대해 사회교리에서 바라보는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언급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타협을 거부한다면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4. 노동사목위원회 담당사제 육성과 노동사목 방향 재점검

1993년부터 노동사목을 담당할 젊고 유능한 사제들을 발굴·확보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을 외국인인 도요안 신부에게만 계속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인 신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김옥균 주교는 1970년 무렵부터 노동사목에 뛰어들어 크게 헌신한 도요안 신부가 당분간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기를 바랐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던 이주사목에서 도요안 신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면서도 도요안 신부의 뒤를 이을 젊은 신부를 내정해 둘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에 대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참여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지적되었다. 즉, 1960년대부터 적어도 30년 동안 노동자들이 변칙적인 정치환경 탓에 오랫동안 소외되었고, 정부도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켰으므로 신자들도 노동자, 노동사목, 노동문제상담소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여 바로 이런 점들이 불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목적은 자신과 환경을 향한 복음선포인데, 활동범위가 잘못 인식되어 거친 용어나 과격한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¹²⁾

5. 교회의 가르침 연구

1) 회칙 『사회적 관심』 분석과 연구

1987년 12월 3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회칙 『사회적 관심』에 대한 토론·강의를 1988년에 두 번 하고, 1989년 3월에 사회교리 연구팀을 발족하였다. 현대 사회교리의 7가지 주제¹³⁾에 입각하여 연구

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5월 13일자.

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사목현장』을 연구하였다. 또한 회칙이 나올 때마다 문헌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고유문제를 분석하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약 20명 정도의 사제·수녀·평신도 사회교리 연구팀을 결성하여 한국사회의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질문지·해설서를 펴내고 그 자료를 가톨릭노동청년회, 본당 사도직단체 등에 도입·적용시키기로 하였다. 1989년 4월 24일에 『사회적 관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요안 신부의 ‘회칙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수강하였다.

2)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



노동현장 반포100주년 기념행사

1990년 4월 10일에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노동사목 사제

-
- 13) 첫째, 『사목현장』에서 세상 안에 종교와 사회(신앙과 정의 문제)의 연결, 둘째, 인간의 존엄성(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요한 바오로 2세) 푸에블라 선언, 넷째, 공동선(요한 23세의 어머니와 교사), 다섯째, 정의로운 사회질서(정치·경제적 참여, 참정권), 여섯째, 노동하는 인간(요한 바오로 2세) 노동력이 자본에 우선한다, 일곱째, 국제적 차원의 연대성 문제 강조(요한 바오로 2세) 등이 그것이다.

나 수도자를 중심으로 노동사를 공부하거나 투사를 초대하여 대화하거나 나누자는 의견, 1970년대 주교단 사목교서 『이 시대의 인간화』처럼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사목사제단이 분석하고 교회의 빛으로 조명하는 사목자료집이나 선언문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의견, 국제노동운동을 초대해서 강연회를 개최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또한 『사목』과 『신학과 사상』의 노동특집에 노동사목위원회가 협조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기념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사회회칙을 연구하며, 회원들이 연구한 사회회칙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총무가 교육자료를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등에 배포한 뒤 연구하기로 하였다. 『노동현장』의 연구방법은 워크숍으로 하고, 구체적 방법은 관찰, 판단, 제2 관찰이나 이해 찾기, 실천, 결론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¹⁴⁾ 8월 18~19일에 수원 나그네 집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대표, 수녀들이 『노동현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991년 4월 28일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약 180명이 모여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창무 신부, 김춘호 신부, 김말룡 소장 등이 토론하였다. 각 회원들이 사전에 열심히 준비한 결과, 토론회의 진행과 뒤풀이까지 무난히 잘 진행하였다. 특히 어려운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도 회원들이 사전에 공부하여 수준 높게 발표·토론할 수 있었고, 회원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노출되고, 일부지역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적극성이 더욱 필요하였다는 아쉬움이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좀 더 잘 해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토로되었다. 특히 회칙에 대한 연구모임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아울러 토론회의 취지가 교회 내 평신도·사제·수도자들이 사회회칙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 회원들이 먼저 공부하는 첫 출발이라고 여겼다.¹⁵⁾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기념일인 1991년 5월 15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회원과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의 강론자료는 도요안 신부와 최창무 신부, 구요비 신부 등이 준비하였다.

7월 28일에 『노동하는 인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평화방송 사태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1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5월 10일자; 7월 12일자.

1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5월 2일자.

속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노동사목회관에서 미사 봉헌과 함께 거행되었다. 앞으로도 사회교리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백주년』을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중에서 10~15명 정도를 선정하여 『노동현장』 워크숍 방식으로 개최기로 하였다.¹⁶⁾

6. 교회의 노동참여 25년 정리와 재도약

1996년 3월 24일은 노동사목위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등이 프로그램과 역사자료들을 노동사목위원회에 넘겨주면 바로 입력하기로 하였으나, 교구의 예산삭감으로 장기적으로 작업하기로 하였다.¹⁷⁾ 제25주년 행사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치르기로 하였다. 10월 15일에 이탈리아에서 차니, 까를로, 가브리엘라 등 3명, 10월 16일에 샤리에 주교, 마태오 신부, 마리오 신부 등이 각각 도착하고, 레바논 주교도 초청하였다. 일본의 하야시 신부와 평신도 2명, 타이완에서 2명이 도착하였다.

10월 16일에 수도자 노동사목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출연기관, 자동차산업, 가톨릭의료원과 중소기업 등의 조합대표들이 사업장을 소개한 뒤 외국 손님들과 자유토론을 하였다. 10월 17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를 방문하고, 10월 18일에 기아자동차 공장과 노동조합을 방문하였으며, 새사제학교에서 이탈리아 신부들이 노동사목 경험을 발표한 뒤 새 신부들과 질의하고 응답하였다. 19일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명동노동문제상담소와 외국인상담소를 방문하였다.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는 먼저, 수도자 노동사목 세미나에 수녀 95명을 포함하여 11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이런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성실무자들의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이기를 바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사목에 참여하는 수녀들이 부럽고, 수녀분과에 참여하겠다는 수녀들이 많아졌다.

노동조합 간부들과 만남은 7명의 조합간부들을 포함하여 약 40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노동

1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7월 11일자.

1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12일자; 1995년 11월 10일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조합 간부들은 준비가 다소 부족하였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외국인들은 한국상황을 여러 경로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행으로 정리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수녀동반자 모임은 한국신부 7명, 수녀 5명, 평신도 1명 등 총 13명과, 이외에 다른 평신도, 타이완의 평신도를 포함하여 약 20명 이상이 참석하였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동반하는 신부·수녀들이 참석하여 ‘각 나라의 동반자 활동 특징이 무엇인가?’, ‘동반자로서 가져야 하는 확신들은 왜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였다.

프랑스는 동반자만 1,700~2,000명(1,700명 중 700명이 사제, 나머지는 평신도) 정도인데, 평신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영국은 지도신부 대신 수녀나 다른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이탈리아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같은 운동단체에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실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과 만남은 회원들이 30명 정도 참석하여 타이완, 일본 회원들과 대화하였다. 평신도활동인데 외국에서 신부만 참석하여 평신도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없어 아쉬웠다. 외국신부에게 장년회 팀의 동반자를 질문하자, 청년들이 혼인하여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가톨릭노동장년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5주년행사 외국손님 맞이

교류가 끝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기념 음악회

준비단계에서 남·북부연합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각자 바쁜 시간 중에 활동하느라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남부연합회는 제25주년 행사에서 음악회, 춤, 교류차원으로 준비하였다. 남·북부연합회 임원들이 만날 수 있었고, 이탈리아회원 등 각국 가톨릭노동청년회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음악회는 어린이사도직이 큰 단체인 것을 안 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 다만 분위기를 출연진에 맞추어 방청객이 따로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사전에 리허설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회로 준비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수단들을 이용해서

음악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고,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평가하였다.

전체 행사, 특히 미사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투사선서식과 갱신식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노동사목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톨릭노동장년회 출신은 얼마 안 됐고, 본질적인 면이 빠져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러나 음악회 장소에 신자 아닌 이들이 있어 투사선서의 의미가 더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개인보고를 잘 해 선배들은 자신

들의 과거활동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관광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후 명동성당 마당의 우리 농산물 잔치, 지하성당, 정조대왕의 국조보감을 바치는 행사가 처음 열린 창경궁과 종묘를 관람하고 종로성당으로 돌아왔다. 이어 ‘한국의 집’에서 전통공연을 보았다. 다만 중간에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을 때 타이완과 일본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었으나, 프라도수녀회 총장수녀는 한국의 전통행사를 보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투사선서식

외국손님들은 제25주년 행사 인지 동아시아 대표자 모임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동아시아집행위원 요시노리가 노동사목위원회 한 단체가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내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스칸달 주교는 편지를 보내 활기 있는 노동사목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국제 지도신부도 감

사의 편지를 보냈다.

전국본부의 평가는 외국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투사선서식에서 개인보고서 낭독이 참으로 좋았고 하였다. 수도자 노동사목 세미나에 수녀들이 많이 나와서 놀랐고, 수녀의 정성어린 태도를 좋아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들과 만남에서 한국에 대해 많이 읽고, 배우려고 왔기에 기아자동차 방문 때 뜻 있는 질문들을 던졌다.

동반자모임은 국제교환에 익숙하여 질문지 위주로 하였고, 교류모임도 회원들이 노트를 잘 하는 것을 직시하였다. 니키는 영국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자세를 보고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였다. 이탈리아는 기아자동차 임금이 피아트자동차보다 더 높음을 지적하였다. 외국손님들은 한국인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며, 유익한 교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⁸⁾

1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자.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양성

1. 신학생 연수회

1) 1988~1989년 연수회

1988년 신학생 연수회는 1988년 2월 1~4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박영기 교수와 프라이스 신부의 협조를 받아 주수옥 신부가 4개 신학대학 대신학생 51명을 지도하였으며, 『1987년 신학생 연수 자료집』을 김현배 신부가 발간하였다.¹⁹⁾ 1989년은 2월 14~17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신학생들과 수도자, 평신도 68명이 참가하여 노동자와 교회(도요안 신부), 1990년대의 한국사회 분석(윤여덕 교수), 1990년대의 노동계 분석(박영기 교수), 교회의 노동관·윤리(김주호 신부), 본당에서 노동사목(구요비 신부), 특수사목으로서 노동사목(황상근 신부), 해방신학(장용주 신부), 교회 입장에서 본 노동자와 통일(제정구), 노동관계법의 실상과 허상(손창희 교수) 등으로 진행하였다.²⁰⁾

2) 1990년 연수회

1990년 2월 12~16일에 3개 신학대학 대신학생 총 28명과 수도자 6명을 대상으로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사목위원회가 주관하고 송진 신부가 지도하였다. 노동운동 현황과 전망, 노동운동가 사례 보고, 분과토의와 발표, 노동사목사제와 만남, 노동쟁의와 쟁의조정, 교회기관 내 노동쟁의, 가톨릭 노동청년회 투사와 만남, 한국사회 현실분석, 현장교회 사목자 강의, 산재노동자들과 만남 등으로 진행되었다.²¹⁾ 6항으로 나누어 문의한 것을 정리한 연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가 제출되었다.²²⁾

노동사목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노동사목에 대해 정리가 되거나 많은 도움을 받

1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3월 4일자.

2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1월 10일자.

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3월 8일자.

았다”고 대답하고, “노동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노동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체험을 해야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노동자도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곧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이므로 노동자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동자들의 삶에 동참하고 노동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 숨쉬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신학교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동사목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는 “동료 신학생들에게 노동사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유대를 가져보겠다”는 답변이 제일 많고, “현장노동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겠다.”와 “다른 신학교 밀알회와 교류하겠다”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좀 더 신중한 강사선정”, “일정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중간에 쉬거나 강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와 “현장노동자, 활동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란다.” 등과 학년별, 소속별로 나누기를 요구하였다.

마음에 가장 와 닿은 프로그램은 ‘산재노동자 회원들의 연극’이었고 성염 교수의 강의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만남, 성빈센트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례보고를 통한 그들과 대화 시간 등이었다. 예년에 비해 매일 미사가 있어서 인상 깊고 프로그램 중간 시 다양한 VTR 상영으로 현장감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해 노동사목 신학생연수회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자와 노동문제, 노동사목의 실태와 현황, 각 교구별 특색과 연대의식 고양, 현장체험 중심, 노동사목을 지향하는 신학도로서 위상정립 등이 제기되었다.

3) 1991~1992년 연수회

1991년 2월 19~23일에 신학생·수도자·평신도 21명이 송진 신부 지도로 노동사목회관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992년 2월 19일~23일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주관으로 노동사목회관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는데, 프로그램은 ‘노동운동의 흐름과 전망’, ‘1990년대 노동운동의 흐름과 평가’, ‘ILO 가입 후 노동운동의 변화와 앞으로 전망’, ‘노동조합탄압사례 발표’, ‘산업재해의 사례보고’, ‘신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목의 재정립’(정운영 교수), ‘제3세계 신학의 이해와 새로운 시대 신학의 모색’(서진한 연구실장), ‘백주년의 의미와 사회교리를 통한 교회역할’(김종민 교수), ‘가톨릭노동사목이란?’(권영숙) 등이었다. 또 ‘1970~1990년대 노동사목활동의 흐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970~1990년대 활동’에 대하여 정인숙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특징,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사목자로서 활동, 노동사목과 개인활동 평가, 앞으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김성진의 ‘1990~1991년 활동’에 대한 발표는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주요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권영숙의 ‘1980년대 활동’에 대한 발표는 103위 순교성인 등 신앙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이 세상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어 3개 밀알회 신학생들의 1년간 학습과 활동을 보고하고 ‘나눔의 자리’를 진행하였다.

연수에 대한 평가는 연수회의 일정조정, 대상확대, 현장경험자 강의강화, 밀알회의 교류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하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의 대책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위원장이 연수회를 하기 전에 신학생들을 사전에 두 번 정도 만나 서로 프로그램을 상의하고, 지도신부를 선정하는 문제는 5월 노동사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신학생 연수회에 참가하는 신학생들 대부분 약 3~4년 정도 꾸준히 참석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을 만나면서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지속성이 없고 잘 안 되는 원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노동사목을 펴 나가야 하고 서울대교구 안에서 한국노동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선사목 신부들의 입장이나 방향은 무엇인지 신학생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열망이 역력히 드러났다. 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책을 통해서만 노동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들의 고민이 타당하고 현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셋째, 신학생들과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만났을 때 상황보고에 그치지 말고 분과를 나누어 노동자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야 한다. 넷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밀알회 출신 신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밀알회 자체가 미래의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등이었다.²³⁾

4) 1993년 연수회

1993년 연수회는 도요안 신부가 밀알회 회장 이상룡과 부회장 배상도를 만나 연수회 내용으

2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자.

로 노동법, 한국노동계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노동사목과 현장노동자의 경험 등을 설명하고 서울과 광주 대신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종로노동사목회관이나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가운데 선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될 수 있는 한 이들이 대신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²⁴⁾

1993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교구 대신학생 6명, 수원교구 대신학생 2명, 살레시오수도회 사제 1명, 성심수녀회 수녀 2명, 프라도수녀회 수녀 2명,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 1명, 그리스도성혈흡송수녀회 수녀 1명 등 총 15명이 연수회를 개최하고, 강의·사례발표·현장탐방·주제·인원·시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어 연수회의 인원감소 원인대책과 관련하여 광주대신학교의 상황을 검토한 후 적극적인 연수회 참여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연수회는 서울대교구 신학생들이 우선 대상이므로 수도자보다 적으면 신학생 연수회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이 부각되었는데, 밀알회를 중심으로 신학생들을 동원하였으나 활동이 부진한 점도 지적되었다.²⁵⁾

1993년 연수회에 신학생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하여 서울·광주·수원 대신학교 밀알회 신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일반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동사목 프로그램이기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밀알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편향적이라고 평가되어 1994년 연수회는 일정과 내용을 노동사목위원회가 주관하여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²⁶⁾

5) 1994년 연수회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3학년 대신학생들을 위하여 노동사목 피정과 연수회를 요청하여 1994년 2월 14~18일에 아론의 집에서 49명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노동사목의 영성’ 등으로 진행하였다.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주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 ‘가톨릭교리의 독창성’ 분과토의, 패널토론,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으로 노동사목 소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과 만남, 노동자와 만남 등으로 이어졌다.

종합평가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좋았던 점은

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자.

2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2월 25일자.

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8일자.



신학생 피정·연수회(1994년)

‘활동가, 일선 사목자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관심한 분야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다’,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였다’, ‘노동사목의 필요성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정적인 측면 즉,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피정과 연수회가 아닌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프로그램이 딱딱했다’,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주기 바란다’, ‘사회교리는 심도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초대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여 아쉽다’, ‘가노청, 가노장 이외에 전체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²⁷⁾

6) 1996년 연수회

1996년 연수회는 서울대교구 3학년 대신학생을 대상으로 2월 5~9일에 개최하였다. ‘사회교리’

2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3월 10일자.



신학생 연수회(1996년)

라는 주제로 ‘가톨릭 사회교리란?’, ‘가톨릭 사회교리의 변천’ 등을 수강하고 분과토의와 패널토론을 하였다. 또 ‘가난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활동사례’,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를 수강하고 분과토의를 하였다. 또 ‘가난의 영성에 대한 대화 -가난한 이들 안에서 활동과 만남 중에 무엇을 느끼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토론하였다. 아울러 ‘사회사목부 각 부서 소개’ 뒤에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에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였다.

이어 1996년 12월 26~28일에 ‘노동법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과 노사의 반응’ 강의와 ‘노동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실태와 교회의 역할 ①’, ‘노동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실태와 교회의 역할 ②’, ‘노동사목의 역할, 21세기의 전망’을 수강하고, 밀알회의 1997년 계획을 세웠다.

7) 1997년 연수회

1997년 신학생 연수회도 2월과 12월에 두 번 개최하였다. 1차 연수회는 2월 10~14일에 분도회관에서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을 대상으로 거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가톨릭 사회교리와 변천’은 ‘기본지식이 없는 가운데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는 데 어

려움 느낌', '사회교리에 대해서 체계적,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됨', '사회교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신선하고 좋은 기회였음', '사회교리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찰·판단·실천하는 교회의 노력을 볼 수 있게 됨' 등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노동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는 '진솔한 삶의 체험이 곁들어진 시간으로 좋았음', '자극을 준 시간이며 『함께 한다는 의미』를 배움', '매일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찾는 내 모습을 상대적으로 반성하는 기회',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한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을 알 수 있음' 등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 변화'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개정노동법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음', '전문적인 분야를 쉽게 알 수 있게 됨' 등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패널토론에 대하여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특히 현 사회에서 사목자로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시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됨', '교회 내 평신도 역할이 중요하고 그들의 교회참여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남',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시간이 짧았음' 등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가난의 영성의 대한 대화'는 '오늘날 가난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었음', '너무 신학생들이 현장문제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가난』에서 떨어져 있음을 앎', '프라도회 수녀를 비롯하여 실제로 일하는 이들을 보아 새로운 교회활동의 모습을 보았음' 등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사회사목부 각 단체 소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음', '각 단체들의 활동과 지향점을 들었고 현 시대에 요청되는 사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음', '사회사목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게 된 꼭 필요했던 시간임', '특수사목이란 불렀던 단체들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음', '너무 많은 단체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데 오는 어려움이 있었음' 등으로 평가하였다.

일곱째,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은 '실무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했음', '진행의 미숙함과 실무자들의 능력이 부족함', '노동문제 상담에 대해서 알게 됨', '진솔한 얘기를 통하여 우리 젊은 노동자들의 삶을 느낄 수 있음' 등으로 평가하였다.

여덟째, 연수회 전체구성과 총평은 '짜임새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음', '강의시간보다는 토론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길 바람', '패널토론과 실무자들의 만남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 '신학생들의 토론시간이 더 길게 주어졌으면 함'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4학년은 성지순례나 공소체험을 하는데, 노동연수에 이어 꼭 현장체험을 하고 싶음', '현장체험이 병행된다면 실무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음', '노동연수 외에 사회복지나 사회교정사목 현장실습을 했으면 함' 등을 건의하였다.

✠ 제4절 수도자 양성과 활동 참여

1. 1988년 가톨릭노동청년회 ·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동반자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교육

1980년대 노동사목에 투신하였던 수녀들은 1987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수련수녀 3명, 북부연합회 수녀 1명, 가톨릭노동장년회 수녀 1명 등이고, 1988년 8월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수녀 1명, 북부연합회 수녀 2명, 가톨릭노동장년회 수녀 1명, 준비 중인 수녀 1명 등이었다.²⁸⁾

수녀분과는 1987년 8월 1일에 10명의 수녀들이 노동현장을 체험하고²⁹⁾, 1988년의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중에서 팀 회합에

2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1일자.

2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9월 1일자.

참석하거나 팀을 구성하자. 복음에 비친 사목을 경험하자. 장상연합회와 노동사목위원회와 계속 연결하고 일을 추진하자. 교회지침을 따라 신부, 수녀단 모임만이 아닌 분야별로 만나는 장을 마련하자. 현재 약 10명으로 구성된 수녀들이 노동사목회관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에 건강상담을 한다.” 등이었다.

수녀분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즉, 노동사목에 관심 있는 수녀들은 장상수녀로부터 정식공문을 받기 전에는 계속 관심을 갖기 어렵고, 한 지역에 뿌리깊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매월 1회 수녀분과 모임에 14개 수녀회만 참석하고 연구회나 나눔은 더욱 참석률이 저조하였다.³⁰⁾ 이러한 진단과 활동방향에 따라 프라도수녀회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에 동반자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시작·동기를 보면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팀 회합에 참여할 때 회원이나 연합회 또는 지도신부의 요청을 따랐는데, 새로운 지역에 팀을 조직할 때 수녀에 의하여 조직·구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합회와 연결하고 투사를 요청했다.

팀별 회합과정은 회합의 중요성과 준비, 생활반성, 계획, 실질적 실천, 투사의 역할과 사명감 내지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함 등을 강조하였다. 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 만남보다 함께 찾는 것이 좋으며, 팀 속에서 노동문제가 대두되거나 팀원들의 능력 이상의 문제에는 상담소를 소개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팀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팀을 구별해야 하는데, 팀 구성의 의도를 구별하고 목적에 맞게 협력자도 요청해야 하였다. 팀 회원들이 수녀에게 가르침을 기대하는 경우 준비하지 않고 의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제일 어렵고, 자기의견이나 결정에 대한 주체성이 필요하지만, 사제나 수녀, 선배들의 의견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양성과정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지나친 참여·간섭으로 의식화하기보다 기다림이 필요했다. 특히 투사선서에서 소속 팀원에 대한 의식이나 생활변화, 심리적 상태를 의논하지 않고 섹션이나 연합회, 지도신부의 투사선서 권유와 진행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팀 전체가 어려워졌으며, 참다운 양성의 열매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당 관계자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하였는데, 노동사목자로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가난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프라도수녀회가 느끼는 한계는 무엇보다 공동체 프로그램과 교육의 필요이었다. 특히 양성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선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한계도 있고, 노조활동

3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도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에 따라 함께 찾아가며 하는 것이어서 수녀의 의견이나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특히 노동자들처럼 전일제로 노동하여야 했는데, 회원들은 수시로 시간을 내기를 요구하지만 일과 기도, 공동체 생활, 사목활동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배려해도 모든 것에 응답하기 어려웠다.

수녀들이 속한 공장에 노조활동의 필요를 느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안에서도 ‘조합활동의 복음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운동의 활발함은 과거 사도직단체에서 활동했던 리더에 의한 정상적인 사회운동의 발전이라고 보며 사도직 단체를 통하여 계속 양성과 투신, 복음적 심화를 위하여 사목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 사목과 사도직활동은 긴밀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양자를 구별해야 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실현되도록 일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제들과 수녀들이 사목적 나눔을 해야 하며, 양성을 돕는 입장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하였다. 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동반자들이 분별해 주는 것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관계 속에서 약화·강화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회합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팀의 중요성을 느끼고 사명감으로 투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2. 1989년 성체대회 참여와 1990년 활동

1989년 10월 7일, 성체대회 행사 중 젊은이 성찬제에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가 참석하였다. 이에 앞서 6월 19일에 ‘사도직 나눔’이란 주제로 10명이 나누고, 7월 17일에 15명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만나 정월기 신부의 ‘사회 안의 노동문제’를 수강하고 모임에 참석한 신부, 수사, 수녀들이 대화하였다. 이어 8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주최하는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 9월에 노동법개정 사항 중 노동조합법에 대해 김주철이 강의하였다.

1990년에 1월에 각 수도회 소개, 2월에 노동자 사례발표와 그룹토의, 3월에 강의, 4월에 사례발표, 5월에 교회회칙 또는 카다인 정신연구, 6월에 강의, 7월에 노동자 사례발표와 그룹토의, 8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수련회 참석, 9월에 성직자들과 만남, 10월에 1990년 모임평가, 11월에 1991년 계획, 12월에 피정 등을 계획하고, 활동방향은 복음연구, 공동체 안에서 노동사목에 관한 관심 높

이기를 모색하고,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고 현장체험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높이기로 하였다.³¹⁾

1990년 9월 17일에 ‘교회가 100년 전부터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 성직자·수도자들도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노동사목 신부들과 회합하였다.³²⁾ 10월 15일에 복음나눔을 하고, 11월에 이 소피아 수녀를 초청하여 ‘노동사목활동사례’를 듣고 ‘노동자들과 어떻게 만나고 앞으로 활동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피정하였다.³³⁾

3. 1991~1993년 활동

1991년은 3개월에 1회씩 연구모임을 갖기로 하여 3월 18일에 『노동현장』을 연구하고, ‘파업전야’를 보았다. 4월 15일에 신당동성당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의 생활변화 소감을 듣고 모두 감탄하였으며, 4월 22일에 원진레이온 김봉환 빈소를 방문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선배 박무영에게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³⁴⁾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는 수녀들은 8~10명 정도이고, 보직이 자주 바뀌어 변동사항이 많았다. 일반수녀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과 노동사목은 거리가 있어 프라도수녀회가 회장을 맡았다. 4월 모임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례를 안 로베르타 수녀가 발표하였다. 수녀는 평신도와 달리 공동생활 때문에 시간제약이 많고,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이 주로 많지만,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보다는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를 원만히 하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필리핀노동자들은 이성문제가 문란하고, 한국인노동자가 이주노동자 때문에 피해를 받는데, 수녀분과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 먼저 작은 일부터, 즉 본당에 찾아오는 한국인노동자나 이주노동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수녀들이 활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산재환자나 어린이사도직 모임, 노동문제상담소 등에 관심을 갖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위치에서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나누기로 하였다.³⁵⁾

3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9월 13일자.

3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1월 10일자.

3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5월 2일자.

3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5월 13일자.

4. 1994~1997년 활동

1994년은 현장노동자들과 자주 만났다.³⁶⁾ 1985년부터 노동사목 수녀분과에서 수고하던 노은혜 수녀가 귀국하였다가 1995년 9월에 중국으로 갔으므로³⁷⁾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 민 체리나 수녀가 회계를 맡았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연수회 이후 살레시오수녀회의 수녀 두 명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수녀분과가 노동사제 글 모음집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를 읽고 이 책에 대한 연구회를 가졌다.³⁸⁾ 수녀분과 모임에 참석하는 수녀들의 반응이 좋아 11월에도 현장실습을 하였다.³⁹⁾

수녀분과에 참여하는 수녀들은 8개 수녀회로 매월 1회 모였다. 1997년은 본당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졌으며, 수녀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싶어하였다. 현장체험 시간만큼은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제복을 벗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1997년 11월 16일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피정하였는데, 도요안 신부가 지도하였다.⁴⁰⁾

36) 1994년도 노동사목수녀분과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3일자 참조.

37) 성 베네딕토수녀회가 중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간호사인 노은혜 수녀가 파견된 것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3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12일자.

3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10일자.

4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11월 6일자.

✱ 제5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민주화와 노동여건 변화

1) 도전 받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자, 지도신부 연수회

1987년 6·29선언 이후 노동계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노동계의 기본노선은 대화를 통한 점진적 문제해결보다 사용자와 극단적인 ‘힘의 대결’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처신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의 신성함을 내세우고, 노동자의 인권을 찾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운동권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외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사회환경의 복음화를 추구하므로 폭력적인 투쟁도 불사하는 일반운동권의 행동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의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운동권과 위장취업을 통하여 노동계에 들어온 학생운동권⁴¹⁾, 도시산업선교회⁴²⁾의 대처방식과 크게 달랐다. 주입식 학습,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관찰·판단·실천의 복음적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하면서 양성된 회원들은 신앙에 비추어 환경을 바꾸어나가는 온건한 행동방식을 추구하였다.

41)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한 온건한 해결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즉각적·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파업과 같은 강경한 투쟁방식을 선호하였다: 필자 주.

42) 같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 활동하면서도,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모아 가르치면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게 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다: 필자 주.

그러나 이런 온건한 행동방식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강력한 조직력에 호감을 갖고 연대하려는 운동권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즉, 강경하고 급격한 방법으로 즉각 결과를 기대하던 운동권, 나아가 일반노동자들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방법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운동권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투쟁방식을 학습시키고 자신들의 투쟁노선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였다.⁴³⁾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위협받으면서도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환경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도 있었던 반면, 겉모습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을 유지하면서도 동료나 후배 회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보다 운동권의 이념과 투쟁방법을 강요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작업환경 개선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던 정부와 사용자들의 악선전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상황에서 노동계의 극렬한 투쟁방식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처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⁴⁴⁾

노동자들의 권익추구에는 동의하지만, 대화보다 투쟁을 우선하던 운동권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백안시(白眼視)하더라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절실하였다. 사회가 점점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진실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톨릭노동청년회밖에 없고, 당장은 발전이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노동자들이 향락주의에 매몰되었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하여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되찾은 사례들은 이런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⁴⁵⁾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교육과 양성으로 건전한 회원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팀 회합을 통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이끌며, 현장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존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회원들에게 지도신부들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는 매우 절실하였다.

43) 예를 들어 당시 노동계에 침투하였던 운동권 학생들 가운데 “이제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우리가 접수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용동진 신부의 증언, 2007년 11월 2일자.

44) 1970년대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공장노동자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지도신부들의 관심이 부족해지고, 신자들도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 지도신부들의 경우 한두 번 회합에 참석하고 난 뒤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 순수하게 노동자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3월 8일자.

45) 같은 회의록.

2)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전국평의회(1990년)

6·29선언 이후 노사분규를 통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활동 중 연합회에 공식으로 보고된 7건을 분류해 보면⁴⁶⁾,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한 사업장 3곳, 7~8월 분위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한 사업장 1곳, 구체적인 준비 없이 동료들에 의한 움직임에 갑자기 같이 움직여 준 사업장 2곳,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활동하고, 당시까지 분규를 거치지 않고 업주와 타결점을 찾아가는 사업장 1곳 등이었다.

북부연합회 지역 안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중 4개 사업장만 연합회에서 도와줄 수 있었고 나머지 3건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웠다. 4개의 사업장 중 회원전체가 노사분규에 가담했던 섹션은 하나로 뭉쳐 밀고나갔고 전체적으로 잘 단합되었다.⁴⁷⁾ 남부연합회 지역은 소

46)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남부연합회 노사분규 분석 모임 보고서, 1987년 9월 26일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47)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회원들 가운데 농성에 참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입원 중인 회원들도 있었는데, 회원들과 만나 대화하였을 때 농성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긴밀한 연락이 되지 않은 점으로 지적하였다.

규모업체들이라도 노총에서 교육받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였으나⁴⁸⁾,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주애숙은 어용노조 퇴진을 준비하고 농성하다 남자사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그녀를 비롯한 해고당한 4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⁴⁹⁾

① 상계동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

상계동의 구두공장, 전봇대공장, 택시회사 등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준비하였다. 전봇대공장은 1987년 9월 13일에 부장이 노사협의회를 제의하자 노동자들이 동요하였다.⁵⁰⁾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40개 조항 가운데 임금·후생복지·남녀차별 등 17개항으로 간추려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농성할 때 본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나, 고임금자 6명을 상대로 모여 의식된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씩 수렴하고, 저임금자 5명을 상대로 모여 가톨릭노동청년회 방법으로 의식을 계발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원들의 노력으로 3개월간 농성투쟁할 수 있었는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의 필요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 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80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도 있었으나, 상황이 그들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러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계속 만나 준비작업을 다 한 뒤에 결성하기로 하였지만, 노동자들이 당시의 노사분규를 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동조하였으므로 전체 노동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⁵¹⁾

② 암사동 빠이롯트공장

암사동 빠이롯트공장은 1987년 초부터 8월까지 준비한 3개의 사업장 중 하나로 북부연합

이렇게 급박한 상황일 때 노동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긴밀한 연락 체제를 아쉬워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9월 1일자.

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4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9월 1일자.

50) 당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각 부서별로 일하여 전 직장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점심시간 이외에는 접촉할 수 없고, “노동자, 임금투쟁, 노동3권...” 등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공장사람들이 노동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장이 욕을 했을 때 맞받아 욕을 하자 공장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침투된 사람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양성공과 기능공을 분류하여 채용하였는데, 양성공은 연줄로 들어오고, 비정수기와 성수기에 이동률이 높아 10년간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51) 같은 회의록: 김영선의 증언, 2008년 1월 8일자.

회 안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중에서 가장 컸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1987년 12월부터 모임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로 파급될 경우, 회사에서 미리 막을 것을 우려하여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농성을 끝 뒤 업주가 3일간 부서를 이동하였다. 이때 의식 없는 노동자들이 부서를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업주는 농성하는 동안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농성하는 동안 주도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여 총 200~250명이 끝까지 남았으나, 경험부족으로 농성에 참석한 200명에게 보복조치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였다.

노동문제상담소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업주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노동자들이 단결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분규를 일으켜 주동자인 황경숙 1명만 탄압을 받았는데, 출근정지 싸움을 계속하였고 성남공장으로 전근되었다. 빠이롯트공장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때 암사동 노동자들이 본당신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본당신부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출근정지 싸움장면을 현장에 나와 사진으로 찍었으며, 노사분규상황에 대해 계속 의견을 나누었다.⁵²⁾

③ 묵동 크라운제과공장

크라운제과공장 노동조합은 설립된 지 10년 되었지만, 어용노조이고 당시까지 조직이나 힘이 미약하여 퇴진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안양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먼저 시작하자, 서울 본사도 개시하여 나뉘대로 단결되었다. 그러나 안양은 몇 사람이 주동이 되었기 때문에 업주는 이들을 제3자개입으로 탄압하였다.⁵³⁾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이 1,500원 인상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투쟁하라고 지시하였으나⁵⁴⁾, 임금인상의 근거가 주먹구구식이었으므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2년 뒤 선거를 대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어용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씩 정리하기로 결정하여 조합원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반회 등에 초대하여 노동자도 ‘하느님의 모상’인 존엄한 존재이고,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통하여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임을 계속 인식시켰다. 또한 회원들이 속한 부서의 활동을 통하여 이들과 친근한 관계를 만들었으며, 성당으로 초대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현장 안에서 조합원과 대의원으로서 주변의 노동자들을 변화시켰다.⁵⁵⁾

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5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9월 1일자.

54) 노조지부장이 개신교신자로 업주의 친척이었다: 교육자, 2008년 1월 30일자 증언.

④ 구로공단 남성전기

남성전기 노동조합원들이 상여금 200% 추가 인상(400%), 점심시간 20분 연장(40분), 추석·설날 유급휴가 각 3일을 요구하며 노사협약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1987년 8월 31일, 퇴근 뒤에 농성하는 1,400여 명 노동자들을 남자사원들이 급습하여 주동자 4명과 다른 6명의 노동자들도 강제로 봉고차에 실어 안산시 야산에 버렸다. 9월 3일에 출근하는 4명의 종업원들을 다시 야산에 버리고, 3일 뒤 이들을 감금하거나 강제로 사표를 쓰게 하였으며, 8월 31일자로 해고통보서·퇴직금·급료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남성전기 노동자들은 업주가 고소장을 낸 뒤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뒤 10월 26일에 법원에서 심문을 받았는데, 10월 31일까지 회사와 합의한 뒤 복직하고 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나, 회사는 노사분규 이후 임금에 대해서만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합의하지 않았다. 남성전기 노동자들 가운데 주동자 4명을 도와주려는 동료도 있었으나, 업주가 미리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노동문제상담소는 남성전기 노동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감금 등에 대하여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한 것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⁵⁵⁾

⑤ 등촌동 마이크로전자회사

등촌동 마이크로전자회사는 종업원 120명이며 일당제로 초보자는 3,200원, 3개월 뒤에는 3,670원을 지급하였고, 1주일에 잔업 4번, 특근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평균임금이 월 140,000원이었다. 기숙사가 없어 지방출신들은 거의 자취하여 당시 월급으로는 최소생계비조차 부족하였다. T.C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자들은 생산량에만 신경을 써 아프다고 하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거나 끝날 때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등 노동자들의 보건문제에 무관심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1명이 직장 선배 5명과 팀을 결성하고 6·29선언 이후 농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임금인상, 상여금지급, 인격존중, 복지시설마련 등을 내걸고 첫째 날에 반장들끼리 철야농성을 하였다. 둘째 날에 업주가 문을 닫겠다고 응수하자, 집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남자들은 거부하여 일단 해산하였다. 셋째 날에 호소문을 작성한 뒤에 40여 명이 다시 모여 끝까지 싸우자

55) 당시 목동성당에서 사목하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홍 야고보 신부와 본당사무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교육자, 같은 증언.

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고 결의하자 업주가 협상에 나섰다. 25% 인상을 요구한 임금이 7% 인상에 그쳤고, 상여금도 250%로 결정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더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의하고 인격존중, 연차수당과 직책수당 지급, 건강진단을 요구하였고 복지시설로 환풍기 등이 마련되었다.⁵⁷⁾

⑥ 독산동 무극사

무극사는 종업원이 60명이지만, 성수기는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남자들은 축구팀으로, 여자는 응원단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노사분규로 농성하면서 상여금 400% 지급, 일당 1,500원 인상,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실시, 생리휴가, 수·토요일 정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중식무료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업주는 노동조합과 농성가담자를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노동자들을 뒷조사하며 협박하였다. 농성가담자 22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업주는 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업주의 유혹에 넘어간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조합원들끼리 다투었다. 업주가 거짓으로 폐업공고를 내자, 노동자들이 성명서와 함께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민주당사에 들어가 농성하여 상여금 200% 지급, 일당 700원 인상, 월급제 20,000원 인상 등에 합의하였다.⁵⁸⁾

⑦ 동아건설

동아건설은 본사와 봉제공장(문래동) 그리고 진주, 마산 등지에 직포공장과 나염공장 등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저임금, 계속되는 잔업과 비인격적 대우 등으로 농성하였다. 이들은 어용노조 퇴진, 상여금 600% 지급, 임금인상 25%, 남녀차별 금지, 관리직과 기능사원의 동등한 대우 등과 같은 14개 사항을 요구하였다.

본사노동자들이 1987년 8월 7일에 먼저 시작하여 바로 길 맞은편에 있는 봉제공장으로 연락하여 합세할 것을 제의하였다. 반장회의에서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한 사람씩 본사로 이동하여 합세하였다. 8월 8일에 임시휴무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업주의 응답을 요구하였지만, 8월 9일에 업주가 계속 응답하지 않자, 전경과 대치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8월 12일에 단식농성을

57) 같은 회의록.

58) 당시 무극사의 대학생 위장취업자 3명이 처음에는 뒤에서 도와주었으나, 회사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극사의 경우 회사와 합의한 뒤 다시 노조를 결성하였는데, 학생들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어 임원이 될 수 없어 배후에서 노동자들을 지시하였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이후 운영이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전혀 몰라 이상히 여겨 조사한 뒤에 대학생 위장취업자들을 색출하였다.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시작하고, 8월 13일에 회사와 협상을 시작하여 회사가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로 하자 농성을 중단하였다. 업주는 어용노조 퇴진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⑧ 1987년 분규동기에 대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의 평가

1987년 7월에 지방에서 무수히 일어나던 노사분규가 8월에 서울의 동쪽부터 시작되었다. 암사동이 서울에서 제일 먼저 농성을 시작한 것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판단 때문이었으며, 나머지 분규사업장에서 회원들의 활동도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회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8, 9월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노동자의 움직임은 정치적인 변수에 휘말려 버리고, 사업장 동료들은 비록 편파적이고 오보(誤報)될지라도 신문·방송을 보고들을 수 있었고, 노동자가 움직일 때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회원들이 느낄 수 있었으며, 가장 성수기였으므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특히 관철되기 쉬운 시기이어서 8, 9월은 서울에서 분규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회원들이 판단했던 대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단결되었다.

각 사업장에서 회원들은 일대일의 대화와 호응을 얻어내려고 온 힘을 쏟았다. 즉, 최소한 같이 움직일 동지로서 팀을 구성할 때 그들에게 먼저 의욕을 심어주는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결정적인 시간에 당황하는 팀원들에게 의연한 자세로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동료들도 사전에 일대일의 준비과정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상황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이야기하여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나누었다. 현장의 불만이 10~16년 동안 그대로 누적되고, 이를 몇몇만 알고 있다가 마침내 모두 알면서 공동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인정한 결과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이었다.⁵⁹⁾

2.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기반강화

1)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남부연합회는 1988년 활동방향을 ‘동료들과 함께 하자’와 ‘섹션 활성화에 중점을 두자’로 정하였다. ‘동료들과 함께 하자’는 섹션의 자체행사가 많아 직장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5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1월 3일자.

별로 없기 때문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의 기본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중복되는 섹션행사를 통합하여 한 섹션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섹션은 참석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섹션 활성화에 중점을 두자’는 일반회를 통해 섹션확장에 중점을 두며, 연합회는 자료나 경제문제만 지원하고 각 섹션에서 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양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1989년 하반기에 남부연합회는 기존섹션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회원들도 많이 지쳐 남부연합회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공단 내 4개 사업장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구로1동성당에서 노사분규 사례들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⁶⁰⁾

북부연합회는 1988년 활동방향을 ‘가톨릭노동청년회 기본정신의 확립’과 ‘지역의 확장’, ‘투사들의 자질향상’ 등으로 정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기본정신의 확립’은 6개월 넘는 회원들에게 매월 1회 예비회원 교육을 하며, 강사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선배들이나 활동하는 회원을 선택하였다. ‘지역의 확장’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단결과 회원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투사들의 자질향상’은 관찰·판단·실천에 따라 생활하여 회합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며, 노동법교육도 마련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⁶¹⁾

그러나 1989년 6월의 회장단 모임에서 기존섹션들이 침체되는 대신 새로운 팀이 구성되지만, 지도투사들의 양성이 어려워지고 양성된 지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팀을 떠나 조직과 연결되지 못하여 조직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을 호소하였다.⁶²⁾ 회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팀 회합만 참석하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회원들이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하지만 신앙과 노동을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소홀히 하고 멀어졌다. 또한 도시재개발로 회원들이 거주지를 자주 이전하여 직장·집·성당과 멀어져 지역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⁶³⁾

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7월 4일자.

61) 당시 북부연합회는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회원들의 영성이나 카다인 정신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조건, 대우, 임금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법도 함께 교육하였다. 연합회는 회원교육안을 제시하지만 일단 회원모임에서 투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연합회가 수렴한 뒤에 교육하였다. 회원이 되기 위하여 팀에서 1~2년 이상 양성과정을 거친 뒤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투사선서 전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들어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돌아보고 집중교육 뒤에 선서를 위한 피정을 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62) 당시 북부연합회의 약 70%는 팀회합을 하였으나, 여자지도투사가 부족하여 투사 없이 회합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부족한 이유가 20대 초반만 되면 사생활 때문에 청년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9월 10일자.

63) 같은 회의록.

2) 북부연합회 분할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가 남·북부연합회로 갈라질 때 한강을 중심으로 나뉘어 남부보다는 북부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였는데, 한강 이남인 천호동과 암사동 지역도 북부연합회에 포함되었으며, 창동에서 의정부까지 모두 북부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988년에 회원들의 확장이나 노동사목의 발전을 위하여 북부연합회 지역을 분할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⁶⁴⁾ 첫째, 북부지역이 광범위하여 회원들 간의 섹션방문과 교류가 힘들어 연대가 어려웠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였다. 셋째,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확장과 회원들을 지역별로 양성하고, 북부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이 지역구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988년 5월 21~22일의 상반기 회장단 연구모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부연합회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회원들이 갑자기 만나지 못할 때 연대성이 부족해지고 회원들이 갈라져 힘이 약해질 수도 있으므로 지역분할 방법을 생각해 논의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 북부연합회를 분할할 때 행정구역단위로 조직을 확산하거나 연합회를 나누기 전에 몇 개 섹션으로 지구를 만들어 연합회 산하에 둘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연합회 산하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산하에 섹션을 구성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부·북부·동부 3개 지구로 나누고, 중부지구인 동대문·신당동·옥수동·명동·종로는 종로성당 김현배 주임신부가 준비하였다. 즉, 종로성당을 중심으로 청계천, 동대문상가 주변의 노동자들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북부지구는 이문동부터 의정부4동까지, 동부지구는 성수동·암사동 등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3개 연합회로 분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반 의견들을 종합하여 1989년에 3개 연합회로 분할하고, 1989년 정기총회를 각 연합회별로 개최하도록 구상하였다. 북부연합회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당주교에게 소개하고, 재정도 교구예산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⁶⁵⁾

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3월 4일자.

6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5월 12일자.

3) 가톨릭노동청년회 재평가

① 1988년 노동문제와 교회의 입장

1987년 민주화대투쟁을 겪으면서 교회의 노동운동 참여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진행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상대적 약화, 즉 다른 노동단체에 비하여 활동·투쟁 등이 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운동권학생들이 사업장에 많이 들어가 외적으로 그들을 움직였으며, 1988년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교회도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며, 소극적이거나 방임하는 자세가 아닌 ‘복음화’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회가 운동권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 전체를 활성화하도록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때라고 보았다. 특히 1970년대의 노동운동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도 미약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80년대는 사회운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쟁적인 노동운동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다 받아들이야 하지만, 국민의 5%에 불과한 천주교신자 중에서도 극히 소수인 노동자부터 노동운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3~4년 양성단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활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980년대에 노동조합운동이 많이 완화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동관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70년대와 달리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과, 지도신부나 수녀들이 팀 회합을 함께 할 때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약해진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이데올로기의 문제인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⁶⁶⁾

②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 재평가

198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전국노동사목협

6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5월 12일자.

의회, 천주교사회선교협의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과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회장 등이 다양한 모임을 개최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먼저 1970년대와 198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차이를 시대변화와 연계하였다. 즉, 1970년대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선도하였다는 인상이 짙으나, 정치적인 대변자 역할을 주로 하여 조직이 성장하기 전에 정치적인 활동이 컸으며, 중소기업에서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다른 조직과 연대하지 않았으며, 대기업의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회원들은 소기업인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대기업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이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한편,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확장되어야 할 본당은 아직도 많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팀을 만들 때 파견할 지도투사가 부족한 부분에서 신부, 수녀들이 함께 하고 관심을 기울일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2~3년 된 회원들의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어야 하므로 기존회원들이나 신부, 수녀들의 노력을 반성하고, 신앙교육 측면에서 현실의 잘못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실천을 강조하며, 중산층이 주류인 천주교 내에서 노동자들이 바라는 평화와 안정, 마음의 휴식만을 고수하기보다 그들의 의식을 깨어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역량도 필요하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의식을 더욱 고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이유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작은 일부터 사업장을 변화시키지만, 다른 사업장의 문제점이나 사회흐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약해진 것은 정부의 탄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부세력의 개입에 분명한 한계를 긋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급변하는 노동계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줄 아는 회원들이 적었고, 회원들의 사례나 선배들의 강의 외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과 활동도 교환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동사목회관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교육 등 노동자들에게 유익하고 실제로 도와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⁶⁷⁾

③ 가톨릭노동청년회 ·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의 융공 · 좌경성 재검토

주수욱 신부는 한국경제가 고도로 성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 · 농민을 희생시켰다

6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1일자.

고 평가하였다. 즉, 이 무산대중의 권리 찾기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성장정책을 이유로 정당한 권리주장을 초보단계부터 저지하였으며, 그 주체는 업주들과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로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교리를 근거로 노동자·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주장을 옹호·지지하였으며, 현장에서 사도직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교회가 노동자·농민들의 편에 설 때마다, 그리고 교회의 노동자·농민단체를 옹공·좌경으로 매도하였다.

특혜를 받은 재벌들 위에 군부정권이 있고, 지배세력이 '좌익'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탄압하였으며, 여기에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가 포함되었다. 1987년 이후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빈부격차가 극심하여졌음을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농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로 사회가 달라졌지만, 집권 세력은 계속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불의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일반대중의 'Red Complex'를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건전한 통일논의를 확산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침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적고, 예산은 회원의 존도가 높아 교구보조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5%인 가톨릭신자 대부분이 중산층이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노동계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노동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가톨릭신자도 여전히 적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업주와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톨릭노동청년회,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성명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교회는 한국노동계의 상황과 움직임을 그때그때 정확히 바라보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차원에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을 요청하였다. 현장 안의 평신도들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사도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교단 사목교서 『이 사회의 인간화』가 발표된 것은 시대상황에 알맞은 것인데도 교회 안에서 잘 읽혀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대교구만이 아니라 노동사목이 희망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다른 교구들의 노동사목이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주어야 함을 지적하였다.⁶⁸⁾

6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1월 1일자.

4)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① 심포지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88년에 창립 제30주년을 맞이하여 선후배 회원들이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면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편, 시대정신에 비추어 노동자의 사도 역할을 다하도록 새롭게 깨어나기 위하여 1988년 3월 20일, 노동사목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오경환 신부가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한국 천주교 안에서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생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카다인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가톨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발제하였다.

오경환 신부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한국에 와서 토착화하지 못한 이유로 벨기에 상황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지만, 인간변화와 인권존중은 절대적인 것으로 성서와 주교들의 교서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은 교회가 현실화하라고 가르치는 바를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곧 우리의 역사,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교황회칙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역사의 장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노력은 역할분담이며, 곧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교회가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어제와 오늘을 평가하였다.

지난 30년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한국교회의 인간봉사, 인권증진, 사회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인간봉사에 덜 충실하였을 것이다. 이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창설당시부터 가톨릭정신에 충실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 선배들이 어떻게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모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958년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간 이 정신으로 많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회원들을 통하여 이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사제들에게도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전파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톨릭노동청년회

는 과정의 단체이지 결정된 단체가 아니므로 많은 자기반성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교회가 인간적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이고 한국사회가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었던 이종각이 ‘사회, 노동운동 속의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발제하였다. 이종각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도입될 때부터 1988년까지 30년 동안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변화와 발전을 요약하고, 앞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자 대중교육운동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에 입각한 이념을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에 뿌리를 둔 대중운동이어야 한다. 즉, 팀·섹션 등을 많이 만들고, 현장교회 모습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른 노동운동단체와 폭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넷째, 가톨릭 내의 유일한 노동단체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즉, 교회 내 일반신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곳보다 더욱 열악한 한국의 노동상황, 즉 잇따른 분신, 억울한 죽음들, 빨갱이로 매도되는 것, 엉성한 복지정책 등 더욱 비인간적인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었던 이경엽이 ‘가톨릭노동청년회란?’을 발제하였다. 이경엽은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태동된 상황을 요약하고, 카다인 추기경의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에 진출한 뒤의 상황을 개관하였다. 이어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가톨릭·노동·청년이라는 3가지의 기본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시류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유독 강조되어 다른 부분을 잃는 실정을 비판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정신과 활동방법 준수를 강조하고, 험난한 시기를 살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동을 전개하였는지 실천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1979년 이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용공불순세력으로 몰려 회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쫓겨나거나 위축되면서도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실천하였지만, 일부 교구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감소 혹은 소멸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이러한 퇴보는 회원들의 자질 부족과 교회의 지속적인 협조 부족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사회구조와 인간문제로 고민하였다. 노동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변혁과 인간변화의 우선순위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즉, 일부 가톨릭노동청년회 선배나 지도자,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의 시각과 묵묵히 자신들의 과제를 실천하는 회원들의 시각이 달라졌고, 우리 사회의 변화만큼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적응하지 못하였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단체들 속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자기 위치와 방향을 혼

동하고, 조직과 회원들 간의 필요 없는 머리싸움, 이념투쟁에서 오는 활동저조와 힘의 낭비, 지나치게 노동의 성격만 강조하여 전통과 선후배 관계가 멀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상실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삶이므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극복할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마무리하였다.

첫째, 노동자들이 문제화한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둘째,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하고,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조직의 힘으로 연결한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을 개인이 아닌 가톨릭노동청년회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개인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노동자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통해 사회변화·전체변화가 가능하다는 굳은 믿음을 심는다. 다섯째,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걱정이 아닌 사랑에서 출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여섯째, 청년노동자운동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② 전국토론회와 기념대회

1988년 5월 15일의 제1차 전국토론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약점뿐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야 할 장점도 토의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약점은 첫째,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위상이 정리되지 못한 점이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결정된 단체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부름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존재였다. 따라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30년을 평가·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징표를 정확히 관찰·판단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조직의 위상이 정확히 정리되지 못하여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회원들의 조직에 대한 책임감, 구심점 결여로 나타나 가톨릭노동청년회 본래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다양한 문제를 놔두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노동청년회로 묶어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조직의 전문성 결여는 회원 중심, 개인변화 중심으로 활동하여 노동대중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정치 변화에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지만, 이전 교본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효과적으로 교육받지 못하여 팀 회합을 지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회원자질 문제가 생기고, 팀 회합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웠다. 회원과 교육, 회합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회원들이 나태하였음을 고백하였다.

셋째, 평신도사도직으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교회에서 적극 활동하지 못하였던 점들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교회에 뿌리박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과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과격하고 시끄럽다.”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잔업·특근·철야 때문에 주일미사를 결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과 활동을 교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분명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책임이고 반성하여야 할 점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가난한 이의 교회’,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알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이 밀려난 자리를 중·상류층으로 채워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는 대접받지 못하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교회에서 배척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사제도 있으나, 개개인의 관심과 지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가난한 이의 교회, 가난한 이에게 해방을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임무이었다. 회원 각자가 ‘내가 곧 교회’라는 신념으로 생활하고, 올바른 교회정신을 확립하여야 하며, 가진 이의 교회나 가난한 이의 문제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회정신이 아니므로 사도직으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올바른 교회정신을 적극 연구하여 가난한 이의 교회, 억눌린 이에게 해방을 알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교회의 유일한 노동조직이라고 내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특별연구위원회 구성도 제안되었는데, 교구별 제1차 토론회와 전국토론회의 결과들이 향후 가톨릭노동청년회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1988년 9월 3일에 회원들의 글을 모은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를 발간하였다.

1988년 9월 4일에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된 제30주년 기념대회의 제1부 기념미사와 투사선서식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제2부 노동자대회는 오후 1시부터 길놀이, 대회선언, 30년 약사보고, 대회사, 축사 및 격려사, 현장보고, 당면문제에 대한 가톨릭노동

청년회의 주장, 6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 발표, 대회결의문 채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하였고, 제3부는 평화대행진과 뒤풀이로 마감하였다.

3. 상황변화와 적응

1) 상황변화

1980년대 후반부터 생활환경이 급변하였다.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개인놀이문화를 발전시켜 두 명 또는 혼자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단체보다 개인활동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주의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급감을 초래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6일에 ‘노동자로서 현장 안에서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가톨릭 신자로 현장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은?’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였다.⁶⁹⁾

1990년의 남부연합회는 총 인원이 60명 정도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파묻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토론이 잘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견차이로 대화가 어렵고, 현장의 일에 관심이 없으며, 생활나눔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실천하기보다 조직에 매이는 경우가 많아 회원양성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북부연합회는 6개 섹션에 약 70명 정도이었다. 본당에서 투사선서식을 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인식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회원들의 자질과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들었으며, 침체되는 섹션에 대한 연합회의 관심부족과 행사위주의 활동을 지적하였다.⁷⁰⁾ 이런 상황에서도 남부연합회는 『노동현장』을 공부하였으며, 훈련회 때 사회회칙을 연구하였다. 북부연합회는 『노동현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하는 인간』을 공부하였다.⁷¹⁾

1992년 남부연합회 총회는 약 50명이 참석하였고, ‘팀 화합을 통한 양성의 해’로 정한 그 해의 목표와 달리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자회원들은 주로 소규모업체, 즉 밀링·선반,

6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1월 8일자.

7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1월 10일자.

인쇄소 등 거의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며, 여자회원들은 주로 전자업체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노조활동을 하였다. 북부연합회 총회는 약 30명 정도 참석하였다.⁷²⁾ 1993년은 10개 팀, 48명이었다.⁷³⁾

2) 조직확장 노력

① 기존활동 강화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90년대에 노동환경이 변한 것을 실감하고⁷⁴⁾, 영세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선서 전 교육, 피정, 수련회, 체육대회, 일반회, 노동자의 밤 행사 등 기존활동을 강화하며, 각 팀의 회합방식을 연구하고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일반인들과 여러 차례 교류하고, 수련회 이후 일반인들과 만났으며, 관구체육대회도 1일주점도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하였다.⁷⁵⁾

② 평신도동반자·수녀·지도신부를 위한 가톨릭노동청년회 연수회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평신도동반자·사제·수도자 가톨릭노동청년회 연수회를 1995년 3월 21~24일에 분도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고, 1995년 3월 28일에 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3월 21~22일에 노동청년의 현황에 대한 패넬토론에서 “3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주제로 발표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신이 겪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생동감이 있었다.”와 “다른 주제로 하기보다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부분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여 더 좋았다.” 그리고 “참석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정명 교수의 강의는 “노동청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아쉽다.”, “노동청년에 대한 부분은 가톨릭노동청년회만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자료를 김정명 교수에게 전달했으면 한다.”와 함께 “청소년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크리스토퍼의 강의는 “참석자들의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노동계와 접하고 있는 이들은 정리가 잘 되었으

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자.

7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8일자.

74) 점차 생산직노동자가 줄어드는 반면, 사무직·서비스·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교회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정신과 경제·노동·노사, 그리고 영화와 연극에도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현대문화를 폭넓게 볼 줄 알게 하는 안목이 요청되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1월 10일자.

7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3일자.

나, 처음 노동계를 접하는 참석자들에게는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의 활동부터 출발되는 강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3월 23일의 용동진 신부 강의는 “쉬우면서 구체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하여 소개하였다.”와 “생활반성을 토착화시켰다. 강의 내용과 전체자료를 요약, 번역해서 국제본부와 각국에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리키의 강의는 “생활반성에서 주제를 변경해서 영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주었다.”와 “영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이나 한국의 활동 모두 핵심은 같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거기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평가하였다.

분과토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고, 처음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접하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와 “질문이 구체적이고 치밀하였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평신도들이 분과에 참석하여서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원들과 만남은 “개인소개에 치중되었고 직장사례, 즉 활동사례는 시간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주제를 구분해서 발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발표자가 모두 도착하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발표자들에게 사전에 주제를 메모해서 전달하면 체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두 명 정도 참석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개하였으면 한다.”, “수첩을 사용하는 회원의 보고가 가장 잘 전달된다.”, “회원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살아있다. 수녀와 사제들 이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3월 24일의 강의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위한 좋은 강의였다.”, “평신도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사도로서 어떻게 활동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초대받을 때까지 동반하면서 꾸준히 그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분과토의는 “수도자나 사제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이해하였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동반할 수 있을지 나눔의 자리였다. 이 부분은 전국본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할 부분인데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최창무 주교의 강의는 “가톨릭노동청년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주교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방법과 생활반성 등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여

주셨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수회의 목적에 따른 성과로 “처음에 왔을 때 서먹서먹했지만 돌아갈 때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다.”, “홍보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알고 익히고 돌아갈 수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 있었다.” 등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과제와 전망은 “강의, 분과토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자료화시켜야겠다.”,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벌써 연결되었다.”, “참석자들에게 인사편지를 띄우고 평가서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지도신부들 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모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노동사목 수녀모임에 수녀들이 참석하도록 지원”, “미다드 모임에 관심 갖는 사람들 연결”, “평신도 동반자들과도 연결”, “단계적 연수회 필요, 즉 장상연합회를 통한 1단계 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2단계 교육”, “연수회를 도와주고 지원하여 주신 분들에게 편지, 방문을 통한 인사”, “예산확보” 등으로 정리하였다.⁷⁶⁾

③ 가톨릭노동청년회 교재발간과 용어정리

1960년대에 발간된 가톨릭노동청년회 지침서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기본정신이 잘 나와 있어 용동진 신부가 계속 지침서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몇 명의 신부들과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하고 『생활 속의 사도직』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에 2,000부를 발간하여⁷⁷⁾ 판매기금을 각 단체나 섹션별로 사용하게 하였다.⁷⁸⁾

한편,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사용하는 ‘투사’라는 용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투사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프랑스어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 미국은 ‘노동계를 위한 사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용어변경이 요청되었다.⁷⁹⁾

7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7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12일자.

7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7월 6일자.

7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3월 15일자.

4. 국제교류

1) 아시아지역 가톨릭노동청년회 훈련회

1992년 10월 1~5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CIJOC 모임인 아시아지역 가톨릭 노동청년회 훈련회를 개최하였다. 이 훈련회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지도신부인 구요비 신부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도 이탈리아의 CIJOC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당시 훈련회는 로마에 본부를 둔 CIJOC의 전 국제지도신부인 자니 신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 장 파올로, 필리핀에서 평신도 1명, 인도에서 2명, 말레이시아에서 2명 그리고 한국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아시아회원들이 참가하지 못했어도 한국의 사제·수녀·교구회장들이 참석하는 등 교회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본래정신을 되찾고자 하였다.

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의 상황을 국민대학교 교수가 강의하고, 아시아지역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박영기 교수가 강의하였으며, 생활반성의 영성에 대하여 오영진 신부가 담당하였다. 카다인 신부의 생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발전, 각 나라 가톨릭노동청년회 역사, 발전과정도 발표하였다. 외국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만남을 통해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국제조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아시아회원들의 활발함과 한국회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면서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게 배운 것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1986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분열되면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6~7년 정도 로마의 CIJOC과 벨기에의 JOCI 사이에서 중간입장을 취하였는데,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발전, 그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따르기 위하여 벨기에의 JOCI에서 탈퇴하고, 로마의 CIJOC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평의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였다.⁸⁰⁾

2) CIJOC 총회

1993년 8월 30일~9월 18일에 프랑스 낭트에서 약 50개국이 참석한 CIJOC 총회에 한국

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자. 자세한 내용은 272~279쪽 참조.

가톨릭노동청년회도 참가하였다. 1주간은 연구모임으로 대도시지역 청년노동자 실태를 나누고, 2주간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특징을 논의하였으며, 3주간은 회칙수정과 임원선출, 재정보고와 토론을 하였다. 구요비 전국본부 지도신부는 당시 회의경과를 보고하면서, 이탈리아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축소와 위기상황의 원인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노동운동과 구별해서 청년대중의 기쁨과 슬픔, 삶의 모든 것을 호흡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가톨릭노동청년회야말로 노동계 안의 청년노동 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프랑스 노동조합의 젊은 대표들과 대화를 통하여 한국 노동조합도 지도자들이 주로 30대 이상이고 조합원들이 젊은이들로 구성되었으므로 프랑스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고, 이러한 모임을 만든 사람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들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술회하였다.⁸¹⁾

3) 1994년 세계청년대회

1994년 세계청년대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제로 필리핀에서 개최되었으며, 교황은 “젊은이들을 파견한다”고 하였다. 용동진 신부와 수녀들 그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필리핀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가난한 동네를 방문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필리핀의 실상을 절감하였다. 영적으로 성숙된 17세의 소녀를 보고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하였음을 고백하였다.⁸²⁾

4) 동아시아지역 방문보고

도요안 신부가 1995년 2월 26~27일에 홍콩, 필리핀,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방문하였다. 도요안 신부는 홍콩에서 APHD가 CIJOC에 5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중국상황은 노동자들이 한 기숙사에 4명이 살며, 16시간 노동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하였다. 월급은 350

8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11월 4일자.

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월 19일자.

달러 정도로 홍콩의 1/10이었다. 1994년 인플레 24%, 1995년 28% 정도로 예상하였다.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는 여회장이 35세로 전임이며 어린 회원들과 마찰이 많았다. 홍콩의 가톨릭신자는 28만~30만 정도이고, 산업발달로 직업전환이 불가피하여 재교육이 필요하였다.⁸³⁾

8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 제6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

1. 1980년대 후반~1990년대 가톨릭노동장년회 현황

1980년대 후반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대개 한 사람이 계속 팀을 운영하고, 지도신부가 투사 역할을 대신하였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충실하게 회합하지 못하였으며, 생활차이로 회원들 사이에 열등감이 생겨 연대가 부족하였다.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회합에 참석하여 제대로 회합하기 어려웠고, 월 1회 회합으로 애착이 크지 않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재교육이 절실하다고 반성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1988년의 방향을 ‘내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로 정하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새 회원들을 적극 교육하고, 가정·직장에서 관찰·판단·실천을 따라 생활하며, 팀과 지역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⁸⁴⁾

1988년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 연합회는 9개 본당, 14개 팀, 60개 가정으로, 25~35세 70%, 36~52세 30%이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은 25% 정도이었다. 약 40% 정도가 안정된 직장을 다녔으나, 나머지는 건축노동자 또는 파출부로 불안정하였다. 월수입은 평균 23~40만 원 정도로 대개 장시간노동이 불가피하며 건강문제가 심각하고 회합참석도 어려웠다.⁸⁵⁾ 이들은 대개 소외와 열등감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고, 팀 회합을 할 때 신부·수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있어 신부·수녀들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⁸⁶⁾ 1989년에 16개 팀이 되었으며,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배정을 잘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할 때 회의를 진행하며, 토의내용을 실천하였다.⁸⁷⁾

1990년 가톨릭노동장년회 대표들이 보고한 ‘노동현장의 동향과 노동자들의 의식과 구체적인 생활변화’를 보면, 첫째로 자녀들의 등록금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하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복잡한 대화나 사생활을 나누지 않고, 스포츠·오락 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커 사상에 대한 개념, 가치관의 기준이 없었

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85) 같은 회의록.

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8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7월 4일자.

다. 둘째, 가톨릭신자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힘든 일은 기피하고 포기하며 남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노동사목위원회가 평신도들을 양성하고, 가톨릭 전체 흐름을 1년마다 제시해 주기를 바랐다.⁸⁸⁾

1994년에 16개 팀이 있었는데, 11개 팀은 회합이 잘 되었으나 나머지는 지지부진하여 활성화 대책이 요청되었다.⁸⁹⁾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목적과 활동을 잘 모르는 회원들이 있었는데, 팀을 구성하기 바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수도자나 성직자의 노력과 참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정신이 뚜렷하지 않아 여타 신심단체 활동과 가톨릭장년회 활동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레지오 마리아의 부부모임 정도로 알거나 기도단체, 노동자부부모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팀을 구성할 때 지도자나 구성원에 따라 친목회, 반모임, 신심단체모임 등 갖가지 형태를 나타냈다.

서울대교구 회원들은 교회가 회원을 냉대한다고 느끼는 점이 참여와 활동에 장애가 되었다. 또한 신앙심이 부족하고 성직자나 수도자의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회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톨릭노동장년회 팀회합방법과 목적을 정기적인 나눔과 훈련을 통하여 심어 주고, 정기교육과 훈련, 팀장과 연합회 간부훈련,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피정과 나눔, 성직자와 수도자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교류 등을 제시하였다.⁹⁰⁾

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89) 가톨릭노동장년회는 1994년 당시 상계동, 구로동, 목동, 행당동, 구로1동, 성수동, 월곡동 등 7개 성당에 약 130명의 회원이 있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남·북부연합회 팀과 지도신부 명단은 부록 4 참조.

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이 사목방문보고서는 당시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전망과 희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가노장은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위치에 있는 약한 노동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가난한 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여 주고 있다. 목표는 인간구원이고 그 출발은 지금 여기 삶에서부터라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꾀하며 관찰, 판단, 실천의 뛰어난 복음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2. 이유로는 사목자의 이해와 관심부족이 크다. 사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촉구된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시간부족이나 재정적인 지원 등 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동기유발이 빈약하다. 복음적인 식견이 부족하기에 가노장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3. 이를 극복하는 힘은 신앙이다. 가노장의 사업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의 교회로서 삶 그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교회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사도적단체로서 우리의 정체 확고히). 가노장 회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원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팀회합 때 복음연구와 나눔). 4. 이런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목자가 필요하다. 노동자 없는 노동사목이 있을 수 없지만, 사목자 없는 노동사목도 있을 수 없다. 노동자와 함께 동반하여 사목자로서 전망(비전)이 분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목자양성이 요청된다. 5. 전문성을 띠고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효과적인 복음선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일선 사목자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야겠다. 같은 관심분야에서 일하는 사목자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하나의 대안이다. 한편, 노동사목이 특수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교회(본당) 안에서 일반사목으로 정착되고 본당 안에 노동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배려가 아쉽다.

1997년에 12개 팀으로 줄었으며, 한 달에 한 번 회합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 가운데 북부연합회 출신들은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을 하는 이들이 비교적 많으나, 남부연합회 출신들은 거의 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남부연합회 출신들도 가톨릭노동장년회를 활발하게 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자녀문제로 회합하지 못하고 친목회 형식으로 만났다.⁹¹⁾

2. 남·북부 분할과 전국연합회



전국회의(1990년)

서울대교구연합회 회원들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팀장모임을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생겨 가톨릭노동청년회처럼 남북으로 연합회를 분할하려는 준비작업으로 미사와 팀장모임을 별도로 하였으나⁹²⁾, 분리는 실현되지 않았다.

9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11월 6일자.

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8일자.

가톨릭노동장년회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1991년 4월에 전국연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⁹³⁾ 1996년 3월에 각 교구대표 발언권은 서울대교구 3명, 대구대교구 2명, 마산교구 2명, 광주대교구 1명, 대전교구 1명, 인천교구 2명, 국제집행위원 등으로 정하고, 전국연합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자, 교구별로 회지원고들을 노동사목회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회비는 팀별, 가정단위로 각출하여 연합회로 내고 팀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전국연합회는 서울·마산·대전·대구에서 부담하였는데, 1997년 당시 전체예산의 45%를 서울대교구가 분담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본부가 개발국과 저개발국 가톨릭노동장년회를 돕기 위하여 국제연대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도 1996년부터 교구별로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국제교류

1) 국제총회

① 1988년 스페인 국제총회

1988년 4월 25일~5월 6일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총회에 2명이 참석하였다.⁹⁴⁾ 국제총회의 주제는 ‘조각난 사회’로 불안정한 직업과 실업을 토의하였다. 지도신부들이 부족하지만, 평신도들이 양성되도록 영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복음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⁹⁵⁾ 그러나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이 운동화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적인 활동이 전혀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 노출되었다.⁹⁶⁾ 한국대표단은 총회폐막 이후 5월 20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였다.⁹⁷⁾

9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3월 4일자. 이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의 노동상황과 노동자생활에 대한 설문지의 답변들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주거문제, 노동조합의 어용성과 동료들과 불화, 이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노동계의 변화로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3D업종 기피현상과 함께 용역회사 파출부, 막노동, 하청공장 노동자, 행상, 임시공 등 새로운 소외 노동계층이 출현하고 매스미디어의 악영향으로 인한 노동계층의 연대성 부재현상도 지적되었다.

9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1일자.

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9월 8일자.

9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1일자.

② 1992년 리옹 국제총회

1992년 5월 17~29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총회가 개최되었다.⁹⁸⁾ 5월 17~18일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대륙회의는 한국·일본·타이완·싱가포르·스리랑카·인도·네팔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5월 19~23일에 개최된 국제교류회의에서 세계노동계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전임상근직보다는 임시직고용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증폭되었음이 제기되었다.

남반구는 아무 보장 없이 사는 이들이 다수였으며,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한 자리를 차지한 신자본주의는 경제무질서를 초래하였다. 제3세계국가의 외채와 개발이익은 민중탄압과 체제유지에 이용되었으며, 외채상환 부담은 국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급증하는 이주자와 이민자 문제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희생을 요구하였다. 무기생산은 저개발국가에 탄압과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고, 1992년 남미복음화 500년은 탄압의 식민정책 500년으로 말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도신부양성, 외채 안 갚기 운동 전개, 군비축소 등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와 소외된 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⁹⁹⁾ 한국대표들은 총회 이후 포르투갈로 가서 노동현황과 가톨릭노동장년회를 둘러보았다.

③ 1996년 포르투갈 국제총회

1996년 5월 5~17일에 포르투갈에서 국제총회를 개최하였다. 대륙과 지역 간 나눔을 통해 그 지역의 노동자들과 서민대중들이 처한 상황과 그 사회에서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존엄성과 희망, 연대’라는 총회의 표어를 따라 세계 50여 개 가톨릭노동장년회의 120여 명의 대표들과 지도신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린이노동,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업과 경제안정, 비정형 경제 등 5가지 주제를 토론하였다.¹⁰⁰⁾

98) 이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30~40대가 많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에게 적은 수입과 주거문제가 건강문제와 함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17~18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였으나, 일이 힘들고 일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어 직업을 바꾸고자 하였다. 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직업병을 앓는데, 70% 이상이 작업을 마치고 눈,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관여하지만,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것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 가톨릭신자(예비신자 포함)였지만, 시간부족 등으로 주일미사 참례나 가노장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9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5월 13일자.

10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1월 11일자; 3월 15일자.

2) 동아시아 지역교류

① 제6차 동아시아지역 대표자 모임



아시아 회의

1988년 9월 30일~10월 3일에 타이완에서 한국·일본·타이완 가톨릭노동장년회 대표들이 모여 ‘깨어나자’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 ‘노동자 생활 속에서 인간성 확립’은 각 지역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 안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물질만능주의에서 해방’은 각 지역별로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회원들이 받는 악영향과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대표들은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운동과 노동현실 그리고 가톨릭노동장년회 현황과 활동을 보고하였다.

10월 3일에 1989년에 있을 동아시아 교류모임의 주제를 결정하였다. 노동자생활에서 인간성 확립과 물질만능주의에서 해방, 운동체와 노동계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강화하고, 각 나라 경제사정에 따라 차등제로 정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상호 서면으로 연락하고, 토의주제를 토대로

1년 동안 생활하고 고찰한 후 교류모임에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제2차 가톨릭노동장년회 동반자 모임

② 1989년 동아시아 교류모임
1989년 10월 9~15일에 한국에서 ‘소외된 이 없는 세상건설을 위하여 모두 함께 연대하고 깨어나자’는 주제로 일본·타이완·한국 대표들이 동아시아 교류모임을 개최하였다. 서울과 마산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회합하였으며¹⁰¹⁾, 11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회합실에서 ‘한국상황 및 동아시아 실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③ 1994년 동아시아대표자회의

1994년 10월에 ‘노동할 권리’라는 주제로 한국·타이완·일본·싱가포르 대표들과 옵서버로 홍콩대표, 인도의 남아시아집행위원과 국제본부 사무국장 등 총 20명이 동아시아대표자회의와 동아시아교류모임도 개최하였다.¹⁰²⁾

일본·타이완·한국만 일자리 없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그 나라의 발전과 상관없이 소외되고 여유 없이 살았으며,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원을 감축하였다. 자본이동은 노동력의 불균형을 이루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이주노동자를 유입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특히 3D산업은 이주노동자를 유입하여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켰다. 이를 통해 첫째, 국경 없는 개방과 세계경제의 단일화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화시켰고, 둘째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관습·언어·문화로 인한 장애가 있지만 효과적인 연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으며, 셋째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와 장소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대륙 전체를 보면서 연대를 모색하기로 다짐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이 참된 운동,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운동과 대중운동으로 정착되고 확대되어 환경운동이나 인권시민운동으로도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의미를 두며,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목적인 약한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회복에 관심을 갖도록 생활양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교회로부터 파견된 사도이므로 팀모임에서 복음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다짐하고, 가톨릭노동장년회 모임에서 공동선과 모든 이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형적인 모델임을 확인하였다.¹⁰³⁾

④ 가톨릭노동장년회 남아시아지역대회

1994년 10월 24~30일에 네팔에서 가톨릭노동장년회 남아시아지역대회가 개최되어 동아시아집행위원 백월현이 한국에서 일하였던 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 노동자들을 만났다. 백월현은 한국에서 일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여 가게나 공장을 세우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았다.¹⁰⁴⁾

10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7월 4일자.

1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3일자.

10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29일자.

⑤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와 타이완가톨릭노동장년회 교류

한국과 타이완의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상호 회원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95년 5월 28일부터 5박6일로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회원 6명이 타이완가톨릭노동장년회 가정을 방문하였다.¹⁰⁵⁾ 1996년부터 다른 나라 회원들의 상황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일반회원들이 연 1회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항공요금 등 일반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고 회원 집에서 민박하였다.

⑥ 1996년 동아시아교류모임

1996년 동아시아교류모임에서 한국·일본·타이완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특징, 과제와 공통점 등을 토론했다. 동아시아집행위원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연대는 무엇인지 제기하였는데, 한국의 싼 임금 때문에 일본의 조선공업이 어려워 경비삭감, 월급하락 등이 파생되어 한일노동자들이 경쟁하고, 조합활동과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해결책으로 무엇보다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노동자들은 별로 힘이 없었으나 계속 투쟁하였다.

타이완노동자들을 위하여 안전위생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본에서 진폐증자료를 타이완에 보내기로 하였다. 타이완가톨릭노동장년회는 4개 분회가 있고 회원이 77명이었으나, 회비가 적고 주교가 별로 관심이 없어 전임자를 둘 수 없었다. 인도인 신부가 외국인문제에 관심이 있어 풍습 등의 문제를 나누고, 생동감 있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업안전을 경인 위생안전센터가 관장하였다.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일본은 정리해고, 이주노동자문제, 공장이전 등을 주변과 정보교류로 도와주고, 한국은 가톨릭노동장년회가 회원확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계의 변형시간근로제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타이완은 회원활성화와 레크리에이션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은 타이완에 진폐증자료를 제공하고, 하야시 신부가 친구신부를 통해 지도신부를 약속하였다. 한국의 변형시간근로제는 10년 전부터 작성한 일본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조직활성화 문제는 10년 동안의 결과물을 서로 교환하고 『ACO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의 주인은?』이라는 팸플릿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1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1월 10일자.

10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12일자.

✻ 제7절 국제어린이사도직

1. 국제어린이사도직(MIDADE-IMAC)¹⁰⁶⁾의 활동과 소개

1992년 5월 7일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 명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린이사도직을 공식 소개하였다.¹⁰⁷⁾ 문경수(카타리나)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과 공부방 활동을 소개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였다. 문경수가 사는 지역은 방학동의 뚝방으로 살기가 좋았으나, 8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지내며,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각하였고, 2~3년 내 거의 철거될 예정이었다. 문경수는 이곳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운영하면서 공부방을 1992년까지 운영하였지만, 인원에 비해 공간도 협소하고 교사들도 부족해 흡족하게 교육하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합동 혼인식을 35쌍 주선하고, 월 1회 자모회를 통해 어머니들의 의식교육과 생일잔치, 공동자모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건강·자녀·취학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여름캠프(1991)

김봉순(안나)이 사는 망원동은 난지도가 근접하여 환경이 좋지 않았다. 김봉순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부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활협동조합운동, 과소비추방운동, 폐지재활용운동 등을 함께 하였으나, 이론은 잘 알아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껴 가톨릭노동청년회 방법을 이용하였다. 환경문

제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알고 지키고, 물건을 아껴 쓸 줄 아는 자세와 나눌 줄 아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린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106) 프랑스어 Mouvement International d'Apostolat des Enfants와 영어 International Movement or Apostolate of Children의 약자

10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5월 7일자.

동네 어린이들과 성지를 순례할 때 일회용 도시락과 젓가락을 갖고 오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현 종이 새 잔치’의 참여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85년에 프라도수녀회가 인천공동체를 개원하고 동네 어린이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매일 골목에서 노는 어린이들,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면서 사랑 받기를 원하는 어린이들, 직장에 나가는 부모 대신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먹을 것을 주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가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출발하였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린이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개방하여 한 달 만에 30명의 어린이들이 찾아와 4~8세, 9~13세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림을 통하여 자기생활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방법, 88올림픽 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조사하여 세상을 넓게 알도록 이끄는 것 등을 깨닫게 하고 ‘함께 행동하면 성공한다’로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1985년에 프라도수녀회가 시작한 어린이사도직은 인천 개구쟁이모임을 시작으로 끈이어 귀염둥이모임, 1987년에 한마음모임, 1988년에 셋별모임으로 늘어났다. 프라도수녀회의 어린이모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성수동공동체에 침을 맞으러 온 어머니들과 가톨릭노동장년회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이야기하다 팀을 만들어 1990년 4월에 성수동 파랑새모임을 만들었다.

프라도수녀회 수녀들의 어린이 동반은 캠핑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0년 7월에 대천에서 ‘자연에서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내일의 스타’라는 주제로 캠핑을 개최하고, 이를 12월에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지역별로 부모와 주교를 모시고 상영하였으며, 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모임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다. 1991년에 인천 달모임, 성수동 무지개모임, 성수동 비둘기모임, 가리봉동 미리내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이 해에 초대 동반자회장으로 김경옥(리디아) 수녀가 임명되었다. 1991년 캠핑¹⁰⁸⁾은 첫째로 주제, 프로그램, 현지답사, 식사준비 등 가능한 어린이들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캠핑에서 체험한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캠핑비용을 마련하려고 신문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며¹⁰⁹⁾, 이를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이어 국제어린이사도직을 소개하였다. 프라도 수녀들이 MIDADE라는 국제어린이사도직

108) 초등부가 1991년 7월 29~31일에 강화 내가공소에서 ‘서로 알고 지내자’는 주제로, 중등부가 8월 5~7일에 아산만 둔포리에서 ‘맑고 고운 우리들 마음’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109) 즉, 캠핑에서 느끼고 발견한 점을 중심으로 신문 『작은 손 작은 발』을 1991년 12월 20일자로 창간하였다.

단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1991년부터 국제본부(파리)에 한국의 국제어린이사도직 동반과정을 설명하였다.¹¹⁰⁾ 국제본부는 1992년 2월에 한국의 국제어린이사도직 모임을 MIDADE 안에 정식으로 승인하는 편지를 보냈고, 프라도수녀회는 강우일 주교를 만나 이 단체의 위치를 상의하였다. 주로 노동자들의 자녀가 대상이었고, 학교교육이나 주일학교를 떠난 생활환경 속의 사도직이었기 때문이다. 도요안 신부는 국제어린이사도직을 동반하는 이들과 여러 번 만나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대화한 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에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은 교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사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주일학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¹¹¹⁾ 이런 여건에서도 1992년 3월에 대전교구 공주에서 모임을 시작하고, 5월 31일에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까?’라는 주제로 국제어린이사도직 양성교육을 시행하였다.

2. 미다드 워크숍(MIDADE Workshop)

1992년 6월 27일에 공부방교사 등 총 30명이 국제어린이사도직 워크숍을 거행하였다. 국제어린이사도직 역사와 활동방향 소개, 사례발표, 분과나눔, 전체발표 순으로 거행하였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한 동기 또는 관심을 가진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분과나눔의 주제질문으로 시작하여 간단한 국제어린이사도직 역사, 활동방향, 그에 따른 사례발표를 듣고 “어린이사도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늘날 이 사회,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어떤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가?” 등을 논의하였다.

전체발표 시간에 제1분과는 첫째, “어린이들과 함께 한 동기 또는 관심을 가진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길거리에 방치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탁아소를 시작하였다. 본드흡입이나 가출하는 환경이 어려운 중고생들을 위해 열린 공부방을 마련하고 싶었다. 가난으로 무시당하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응답하였다. 제2분과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여 관심을 보여줄수록 어린이들이 온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들보다 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제3분과는 “간단한 MIDADE의 역사,

110) 1991년 8월에 프라도수녀회의 도 모니카 수녀가 국제어린이사도직 국제본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활동내용을 소개하였다.

11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5월 7일자.



겨울연수회(1996년)

활동방향, 그에 따른 사례발표를 듣고 국제어린이사도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합니까?”에 대하여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실감이 없게 느껴진다. 현재 공부방 실정을 보면 교사의 수가 적고 자주 바뀌어 지속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프라도수녀회의 방법은 이러한 현실과 비교할 때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오늘 이 워크숍에서 나온 사례들은 심성수련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흔히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조직이나 모임도 절대 필요하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에게 잦은 폭행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공부방이 필요하다. 미다드에 관한 설명회라는 것을 사전에 듣지 못하였다. 좀 더 현실적으로 공부방교사들이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제4분과는 “오늘날 이 사회,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어떤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까?”에 대하여 “어린이가 사도가 된다는 것이 무척 새로웠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생각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겠다. 자라는 어린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부방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하겠다. 학원 다니는 어린이들과 고학년 어린이들을 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응답하였다. 제5분과는 “오늘날 이 사회,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자

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어떤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까?”에 대하여 “사회를 보는 시각을 키워주어야겠다. 소그룹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인 교육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는 “우리 동반자는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식욕을 주어야 한다. 자기발전을 위하기보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겸손과 인내로 자연과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프라도수녀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공부방교사들이 관심을 가졌고 전체반응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하며, 이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교사들이 다른 목적으로 왔고 두 번째 질문은 어려워서인지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였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과 그래도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였다.¹¹²⁾

3. 국제어린이사도직에 대한 논란

프라도수녀회 강영자(엘리사벳) 수녀가 국제어린이사도직 현황을 보고하였다. 1994년 당시 48개국에서 모임을 하며, 한국도 국제모임에 가입되어 프라도수녀회 수녀들이 인천과 서울의 성수동, 구로동 그리고 공주에서 모임을 하였다. 국제어린이사도직 모임은 복음정신으로 하지만, 노동자 가족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들로 구성되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는 국제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자녀들이 거의 국제어린이사도직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한국도 국제어린이사도직이 노동사목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유치원부터 주일학교와 이어지므로 국제어린이사도직이 노동사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었고, 각 본당에 청년회가 있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사목위원회 활동이 따로 필요한 것처럼 국제어린이사도직과 단체의 활동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도 있었다.¹¹³⁾

1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9일자.

11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3월 10일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1994년 5월 12일 회의에서 프라도수녀회 정영수 수녀가 어린이사도직의 제반현황을 발표하였다. 어린이사도직은 ‘4~5세의 세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활동에서 그리스도교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 생활의 여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복음화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청년기와 성년기를 정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활동방향에서 국제어린이사도직은 어린이들의 세계 가운데 교화를 실현하며 어린이들의 세계 안에서 어린이들에 의해 활동하므로 교육인 동시에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목적에 따라 활동방향이 인간양성¹¹⁴⁾, 사도양성¹¹⁵⁾, 대중운동¹¹⁶⁾ 등 세 가지 특징을 지녔다. 특히 국제어린이사도직은 국제흐름에 입각하여 어린이들에게 평화교육을 강조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개방되었다. 국제어린이사도직의 활동방법은 어린이 개개인의 특수한 심리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며, 어린이들을 성숙하게 하고, 어린이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놀이와 같은 생기를 주는 활동을 이용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인인 활동’, ‘양성하는 활동’, ‘개인과 그리고 대중에 관계된 활동’ 등을 지향하였다. 어린이들의 모임은 동반자들을 중심으로 규칙에 따라 재편성되지만, 동반자들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암시하고, 격려하고, 유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양성되고 사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린이들이며, 양성과 활동에 도움을 줄 동반자들은 사제·수녀·평신도 책임자들이었다. 한편, 국제어린이사도직은 어린이들의 모든 삶과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 안에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다른 단체들과 협력을 지향하였다.

국제어린이사도직의 노동사목 포함에 대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었으나, 최창무 주교의 사목판단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노동사목에 포함시켰으며¹¹⁷⁾, 1994년 5월 12일의 노동사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어린이사도직 모임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¹¹⁸⁾

114) 개인과 단체의 양성에 역점을 두면서 그리스도교적인 삶, 개인과 공동체의 삶, 선교적인 삶 등 어린이들의 모든 욕구를 고려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도시와 교회 안에 어린이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개개인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양성.

115)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

116) 국제어린이사도직은 대중운동이다. 모든 어린이들과 관련된 운동이고, 어떤 연령의 어린이들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개방되고, 그 어린이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중운동인 동시에 각자의 가능성에 따른 발전과 전체 어린이의 그리스도교적인 생명력, 그리고 투사로서 양성을 가능케 하는 개인양성의 운동을 전제로 한다.

11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12일자.

118) 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4. 제9회 국제어린이사도직 국제총회

1994년 11월 25일~12월 7일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36개국 100여 명이 ‘미래는 열렸다’는 주제로 제9회 국제어린이사도직 국제총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어린이들의 상황, 어린이노동자, 동반자들의 양성 등으로 분과토의를 하고 질의·응답하였다. ‘인간적 사회적 발전 속에서 운동’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정의와 평화로 인도되는 영적이고 인간적 가치관을 교육하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



국제총회(1994년)

육, 가정·여성, 환경, 어린이들의 노동을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당시 총회에서 볼리비아, 과달루페와 함께 우리나라가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이어 다른 종교 어린이와 함께 하는 나라에서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동남아시아지역 어린이 노동자문제가 특히 심하였다.¹¹⁹⁾

국제총회에 참석한 뒤인 1995년 1월 23~24일에 노동사목회관에서 ‘미래는 열렸다’는 주제로 86명이 참석하여 국제총회 전달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총회의 방향에 맞게 1995년 3월에 연간활동 주제를 ‘큰 고리 작은 고리 하나의 고리’로 정하였다.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조사·연구하였는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어린이들 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큰 고리 작은 고리 하나의 고리’라는 활동주제를 따라 팀에서 나눔을 하였다.¹²⁰⁾

119)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 노동자』란 월간잡지를 보면, 태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창가에 판매되고 있고, 스리랑카·필리핀·인도·네팔·파키스탄·아프리카 등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서울대 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월 19일자.

12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5년.

✱ 제8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1. 명동노동문제상담소 활동

1) 상담내용 분석



명동노동문제상담소

6·29선언 이후 명동노동문제상담소에 찾아온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7월부터 11월까지 합계를 기준으로 전체 1,598건(기결률 64%)을 상담하였는데,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과 산재보상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련된 상담이 건수에서도 가장 많았고(1,059건) 기결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85% 이상). 그러나 부당해고 내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상담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았지만(287건), 기결율은 저조하였다(20% 이하). 아울러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건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163건) 기결율도 50%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까지 계속되었다.¹²¹⁾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약간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992년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관한 상담건수는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상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산업재해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변함 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1987년 이후 연간 4,000여 건이 넘는 것은 물론 1989년과 1990년에 5,000건을 훌쩍 넘기던 상담건수가 이때부터 2,0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나마 1996년부터 1,500건 이하 수준으로 현격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노동문제상담소의 체제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교육활동

교육활동은 이 시기에 상당히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1987년 7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총 23회, 총 인원 3,699명에게 노동법과 노동문제를 교육하였다. 다음 회계 연도인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총 27회, 총 인원 4,827명에게 노동법·노동문제를 교육하였다. 그러나 1988년 12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총 23회, 총 참여인원 1,261명에게 노동법과 노동문제를 교육하였다. 따라서 교육 횟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약 1/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노동문제상담소가 실시하는 교육의 수준이 초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관계로 점차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김말룡 소장 이임과 노동사목위원회 산하기구 편입

1979년에 개소한 이래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부심을 살려 줌으로써 노동문제상담소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김말룡 소장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상담소장직은 그만 두었으나,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참여하였다. 제2대 소장 나상필이 박희선(리디아)과 함께 근무하였다. 상담소 설립 초기부터 네덜란드 교회의 외원단체인 세베모의 지원이 마감되자, 1992년부터 서울대교구가 지원하였으며¹²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산하기

1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소장, 명동노동문제상담소 보고서 참조, 이하 같음.

1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5월 10일자.

구로 편입되어 1992년 3월에 도요안 신부가 지도신부로 임명되었다.¹²³⁾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노동사목위원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재정문제¹²⁴⁾와 함께 지도신부와 관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평화신문·평화방송사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와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등 각종 교회 내 노사문제에 노동사목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즉, 교회 안에서 노사문제, 상담소의 인재양성비의 지원, 혼자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외부활동과 환자방문의 필요), 상담소사업에 대한 사제들의 관심, 서울대교구의 상담소에 대한 지원확대 등과 같은 현안들이 제기되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지도자들에게 협조·지원을 요청하고, 노동사목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사회복지회 지원으로 보충하였다.¹²⁵⁾

1993년 초에 두 차례 각 노동상담소 실무자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문제나 애로사항을 교구에 알리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이 실직과 감원, 도산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노동자 스스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실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노동계 변화에 따라 상담소의 역할도 전문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한편, 1994년 8월에 박희선(리디아)이 9월 26일자로 퇴직하였고, 12월에 나상필이 정년퇴직하여 노동사목회관에서 일하던 이태균이 전임되었다.¹²⁶⁾ 노동사목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회관의 실무자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회정신과 사도직단체, 즉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야 하였다. 동시에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실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였기 때문에 적당한 실무자를 내정하기 어려웠다. 그 와중에 이태균마저 사정이 생겨 퇴직하자, 1994년 12월 1일부터 이무술이 제3대

12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24) “구로1동상담소는 지금까지 프라도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셨고 본당에서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라도에서 인건비 중 상여금 40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회의 찬조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창동상담소의 경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프라도 신부님들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신부님들이 상담소 운영문제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교구를 볼 때 1년에 1~2개의 본당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턱턱하다고 보는데,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상담소에는 너무도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사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교회어른들과 상의하셔서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자).

125) 같은 회의록.

1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29일자.

실무자가 되었다.¹²⁷⁾

그러나 1996년에 이르러 이무술 이외에는 더 이상 실무자를 구하지 못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여직원이 전화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문동으로 노동사목회관을 옮기면서 종합상담소를 만들어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1997년 2월 1일에 창동노동문제상담소 김주철이 명동노동문제상담소 간사로 부임하였다.¹²⁸⁾

4) 김말룡 추모미사와 회고



김말룡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고, 명동노동문제상담소 소장과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김말룡이 1996년 10월 3일에 갑자기 선종하였다. 10월 7일 김말룡의 장례미사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학교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면서 “한평생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며 살아온 고인의 뜻을 이어받자.”고 강론하였다. 1997년 10월 3일에 고 김말룡 1주기 추모미사를 종로성당에서 봉헌하고, 제1주기 자료집을 준비하였다.¹²⁹⁾

2. 구로본동노동문제상담소

그동안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총무로 구로동노동문제상담소에서 상담도 병행하던 이무술이 1988년부터 구로본동노동문제상담소 전임이 되었다.¹³⁰⁾ 구로본동상담소는 서울시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경인·경수지역 일원에 취업한 노동자와, 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127)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5월 10일자.

128)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1월 16일자.

129)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9월 11일자.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계간지 제 20호 돋보기 참조.

130) 서울대학교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한 노동자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이들을 대상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상담내용은 산업재해와 민사소송이 가장 많았는데, 공업단지가 밀집된 경인·경수지역을 연하는 교통편과 상담소를 인접한 곳에 종합병원이 많은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이었다. 민사소송이 많은 이유는 성당 안에 상담소가 있었기 때문으로 신자들의 생활법률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따뜻한 위로는 물론, 최상의 보상도 가능한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노동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 노동조합 문제로 개개인의 의견을 집약하여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소그룹형태의 조직으로 노동법을 공부하였다. 구로공단 내의 사업장이 1987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조직되었으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자연감소로 인하여 자체 힘이 약해졌다. 사회 전반의 풍토인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어 함께 단결하여 무언가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상담은 과거보다 점차 줄어들었지만, 상담사례는 점점 복잡해졌다. 당시 구로지역의 상담소들 가운데 교회상담소 외의 것들은 상당수 정리가 되었으며, 지자체 선거를 대비하여 유지하는 정도이므로 교회 내 상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¹³¹⁾ 구로본동노동문제상담소는 1994년 12월 1일에 이무술이 명동노동문제상담소로 옮기자, 1995년 3월 1일에 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 일하던 정귀자(데레사)가 후임이 되어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많지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각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상담소로 보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에 노동부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도 재해자가 병원비마저 부담하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담소에 찾아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사용자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업환경도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산재의 확률 또한 높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롯데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최소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내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도움 창구는 아직 없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¹³²⁾

131) 주요 상담사례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제대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불구가 된 당시 29세의 남자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전신마비로 누워서 생활하였다. 당시 사건담당 상사들은 모두 제대하고 없으며, 군(국가)으로부터 아무런 보상(군은 개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받지 못한 채 모든 여건이 역부족이라 달리 방법을 찾아봐도 교회의 지원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3. 창동노동문제상담소

프라도사제회가 도봉구·노원구·성북구·동두천·의정부를 중심으로 1989년 1월 13일에 창동성당 관할지역에 노동문제상담소 개소하고,¹³²⁾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김주철이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¹³⁴⁾ 이 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으며, 운수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해고가 빈번하며, 상담내용도 몇 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이 많았다.¹³⁵⁾ 창동성당 소속이지만 성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자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입주하였는데, 노동문제상담 이외에 일반상담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¹³⁶⁾

매월 1회 이상 노동자모임을 개최하고, 가톨릭노동장년회 지역팀인 마들팀을 조직하여 지원하며, 노동법을 교육하였다. 상담내용은 개별관계법, 집단관계법, 기타법률 등이며, 방문상담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부터 도와주었다.¹³⁷⁾ 대부분 소액사건을 상담하였으나,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잘 모르고,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문제는 대부분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여러 번 진행되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해고, 폐업이 늘어나고, 조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사업주의 지능적 대응이 많았다. 상담은 임금, 노동조건, 기타, 산재, 해고, 단결권, 교육 순이었다. 창동노동문제상담소의 예산은 프라도사제회가 전액 지원하였으나 1996년 2월말로 마감되자¹³⁸⁾, 도요안 신부가 1995년 12월 18일자로 김수환 추기경과 최창무 주교에게 창동노동문제상담소의 재정지원을 간곡히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1997년 1월에 폐쇄되었다.¹³⁹⁾

1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6년.

133) 애초 성당구내에 개소하려 하였으나, 성당의 화재로 성당 밖에 전세를 얻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1월 10일자.

13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9월 8일자.

13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3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7월 4일자.

13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3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5년.

13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3월 13일자.

4.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

구로3동성당은 도시빈민,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구로3동성당 주임신부인 살레시오회 모지웅(Jesús Molero Sánchez, S.D.B., 毛志雄, 1928~) 신부가 1990년 9월 15일, 성당 지하실에 상담소를 설립하고 은보경(마리아)을 실무자로 일하게 하였다. 이 지역은 노동문제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문제, 민·형사소송관계, 교통사고, 의료보험관계, 청소년문제들도 빈번하였다.¹⁴⁰⁾

노동문제 해결수준이 상당히 낮고, 문제해결기관에 대한 무지와 기피로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체가 많아 산재문제의 빈도가 높고, 교회에 대한 의지 때문에 자신들의 내적인 삶의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여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 하며, 생활법률과 사회복지 상담일이 많았다. 상담자의 체계적인 업무 협조자의 필요성, 상담소 예산문제 해결 등을 제안하였다.¹⁴¹⁾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는 1993년에 1,297명이 내방하여 1,403건을 상담하였으며, 1994년 1~3월에 490명이 내방하여 총 381건을 상담하였다. 해고와 권리관계 상담 68건, 임금과 수당관계 상담 64건, 노조운영 등에 관한 상담 63건, 산재와 손해배상 상담 88건, 민·형사, 행정소송 58건, 개인과 기타 문제 상담 40건 등이었다. 1994년에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가 산재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밀거름팀을 매주 수요일에, 노동사목회관 노동법강좌 수료생들의 재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상담소 인근 1개 사업장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교육팀을 각각 교육하였다.¹⁴²⁾

1995년 7월에 은보경이 퇴직하여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10월 1일에 김효선(수산나)이 들어와 11월 1일에 교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흥부회 신부의 제안에 따라 1996년의 상담업무 내용이 달라졌다. 노동문제상담과 아울러 지역노동청소년 등 구로지역 사람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가 되었으며,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을 통하여 노동자, 상·공업고등학생, 직업학교훈련생 등의 체불임금·퇴직금·해고·산재·생활법률·진로·인간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소모임 정기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청년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되지 않은 청년노동자들이 모여 나눔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가정과 일터에서 오

14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41) “현재 구로3동천주교회는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며 상담소예산은 본당예산 중 찬조비에서 지급되고 있다. 구로3동상담소는 구로3동성당 사목지역만이 아닌 인근지역의 노동자들을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재정이 어려운 구로3동에서 상담소재정을 전부 담당하는 것보다는 소속지구에서 함께 지원하여 운영하거나 구로3동성당이 교구에 납부하는 분담금 중 상담소 예산을 탕감하는 것이 다른 본당과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된다...”(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자).

14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후속모임을 통한 동반자양성도 꾀하였는데, 정기프로그램 후원하는 사람과 모임을 유지하여 다음해 프로그램에 동반하도록 하였다. 본당 예비노동자인 고3(상·공업고등학생)들의 월 모임과 다른 본당과 교류도 활성화하였다. 1996년 3월 20일부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나눔터’, 3월 2일~4월 27일에 노동청소년의 ‘자기성장 모임’과 후속모임, 1996년 5~11월의 ‘산업재해 보상교실’, 1996년 7월부터 ‘노동법 교실’ 등을 시행하였다. 1996년 1~8월의 상담활동은 총 503건 중 내방상담 352건, 전화상담 151건 등이었다.¹⁴³⁾

5. 시흥동노동문제상담소

1993년 3월 17일에 시흥동성당 송진 주임신부가 노동문제상담소를 설립하고 김하동(미카엘)을 실무자로 고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산업재해·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상담하고, 노동법강좌도 함께 실시하였다.¹⁴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금과 산재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11월 등 주로 연말에 집중되었다. 1996년 상담소 이용자는 2,230명이었으며, 산재와 임금관련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¹⁴⁵⁾

지역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 강좌를 1993년 7월 27일부터 1993년 12월까지 개설하여 평균 4~6명이 참가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강좌는 1993년 10월 13~11월 17일에 총 6회를 시행하였는데, 접수인원은 28명, 참석인원은 평균 16~17명이었다. 그리고 인근의 희명병원, 광명병원을 방문하여 산재상담을 하였다.¹⁴⁶⁾

6. 까르딘청소년상담소

1990년대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예비노동자들은 재수생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직업훈련생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제도를 비롯한 제반문제로 고민과 갈등, 몸살을 앓았는

14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6년.

14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4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6년.

14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데, 이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가톨릭노동청년회이었다. 이 노동청소년의 문제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고유영역으로 전화상담, 편지사서함, 방문상담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가 노량진 학원가이었기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상담터가 될 수 있어 1994년 11월 25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가까이에 까르딘청소년상담소를 개소하고¹⁴⁷⁾,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눔을 도모하였다.¹⁴⁸⁾

7. 상담실무자 모임



도요안 신부와 실무자들

6·29선언 이후 급변하는 사회와 노동계의 정세에서 올바른 노동관과 노동문제에 해결책을 제시

14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3일자; 가노청 사제모임 보고서 1994년 1월 11일자.

1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1월 10일자.

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27일에 도요안 신부, 안효경, 김말룡, 이무술, 김주철 등이 ‘교회는 현 노동계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톨릭노동청년회 모임의 침체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앞서야 하는데, 특정 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와 상반되는 노동단체의 입장에 반기를 들어도 안 된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어떤 조직에 속하든 문제를 보고 판단한 뒤에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애, 평화를 실천하는 중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중간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세상건설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침체원인으로 ‘회원들의 신부, 수녀들에 대한 의타심이 커져 자발적인 활동이 약해지고, 양성된 회원들이 현장활동보다 수도성소를 선택하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회원들이 더 많아 가톨릭노동청년회 이외의 사회 흐름에 관심이 부족하다’로 분석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하여 신부·수녀들이 사회문제·노동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회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⁴⁹⁾

1993년 4월 22일에 도요안 신부, 안효경, 나상필, 박희선, 이무술, 은보경, 김주철, 백월현, 김하동 등이 ‘각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상담소의 역할이 사회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회합하였다. ‘가톨릭상담소들의 역할은 사회구조에 영향을 주기보다 개별 차원의 문제해결에 그쳤다. 1987년 이후 노동문제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으며,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실직과 감원 그리고 도산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노동자들이 기업 살리기 운동을 펼치면서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무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워 노동계변화에 따른 전문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993년 4월 29일에 ‘제7공화국 출범 이후 바뀐 노동계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보는 문화로 바뀌었으므로 재정지원만 가능하다면 노동법교육을 VTR로 제작하면 좋겠다. 산재를 위해서 매스미디어 활동이 필요하다. 교회메스컴을 이용한 상담 사례소개나 방송을 통한 노동문제상담도 고려하여 보자.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 시급하므로 가톨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자’고 결정하였다.¹⁵⁰⁾ 구로1동, 구로3동, 창동노동문제상담소는 프라도사제회가 개소하여 재정부담, 실무자양성, 지도신부관계 등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책을 교회에 요구하였다.¹⁵¹⁾

14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15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5월 13일자.

151) 1994년 11월 17일자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문제상담소 종사자 일동이 주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노사

✱ 제9절 산재사목 준비

1. 산재사목 준비작업

노동사목위원회는 1988년부터 노동사목위원회 사업으로 산재환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기로 하고, 서울대교구 강우일(姜禹一, 베드로, 1945~) 보좌주교와 대화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⁵²⁾ 1989년 3월 7일에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사고율 통계, 산업재해 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예방책, 산업재해 방지노력 등을 김말룡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강의하였다.¹⁵³⁾

탄광광부 출신 진폐환자 서재홍 등을 노동사목위원회 회의에 초청하여 산재환자, 산재와 관련된 사례들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산재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확대하였다. 서재홍의 사례발표로 진폐증 등 직업병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원인, 이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가·사회, 노동사목에 바라는 희망·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질의·응답으로 1985년 진폐법 시행에 따른 의료진료와 보상의 확대,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인식전환의 필요와 예방책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재해노동자회의 사례발표로 산업재해노동자회의 설립배경과 목적, 감전사고로 수지 2개가 절단(폐용)되는 산재사고 사례를 경청하였다. 아울러 산업재해노동자회의 교육담당인 공금영이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자’를 통하여 산업재해의 개념,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역사와 현황, 원인·보상 등 산재노동자의 현실, 사회인식의 한계와 재활축진을 위하여 시급한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산재경험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산재관련 선진국으로 잘못 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장길호는 산재법상 보장된 산재치료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치료, 보상, 재활과 사회인식에 대한 현실의 상황’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병채는 산재보상과 관련

문제, 상담소의 인재양성비지원, 혼자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소개하고 외부활동과 환자방문의 필요성, 상담소에 대한 사제들의 관심, 상담소의 지원확대와 같은 교회의 관심·배려 등을 요청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1월 5일자. 서울대교구의 산재사목은 의료부문에서 시작되었다. 즉, 1971년에 성모병원에 산업재해병원을 개원하여 산재환자진료를 시작하고, 1986년에 성모병원을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한 뒤 산업재해병원을 폐원하고 산재진료부(직업병과·건강관리과·산재보험과)를 신설하였으며, 1996년 3월에 직업병과와 건강관리과를 통합하여 산업의학과를 신설하였다: 가톨릭대사전 7, 4506~4507쪽.

15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3월 7일자.

한 농성과 산재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토로하였다.¹⁵⁴⁾

2. 산재사목 전담실무자

1992년 7월 22일에 도요안 신부, 정순옥 수녀, 이무술, 안효경, 은보경, 박희선 등이 산재사목 전담실무자 준비모임을 개최하였다. 산재사목 전담실무자는 산재노동자들을 방문상담하고, 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톨릭 내 노동문제상담소와 사회복지회와 연결하여 일할 수 있는 가톨릭신자로 경험과 연령이 고려되었다. 정순옥 수녀가 적임자로 이무술을 추천하였으나, 이무술은 건강문제와 노동문제상담소를 담당하였으므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양성할 것을 권하여¹⁵⁵⁾ 2~3명 정도 추천 받았지만, 결국 결정되지 않았다.¹⁵⁶⁾

이후 이 문제는 오랫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년 뒤인 1994년에 산재노동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새로운 상담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대신에 상담소에 병원방문 등 산재분야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여러 상담소실무자들이 서울대교구 사회복지회 회장 이원규 신부, 실무자 송옥자 등과 상의하기로 하였으나¹⁵⁷⁾, 역시 계속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¹⁵⁸⁾ 한편, 1993년 7월 25일에 노동사목위원회가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¹⁵⁹⁾ 산재 노동자들과 개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¹⁶⁰⁾

15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5월 4일자.

15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17일자.

1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자.

15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12일자.

1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15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9일자.

1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3일자.

✻ 제10절 이주사목

1.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활동

1960~1970년대에 독일, 베트남, 중동 등지에 많은 노동자를 송출하여 부족한 취업기회를 메우고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단순기능인력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3D업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급감하여 단순기능인력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두 가지이었다. 하나는 3D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을 고용하여 해결하였다.¹⁶¹⁾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한하여 허용하여 단순기능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었다. 그럼에도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노동시장에서 3D업종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들이 3D업종에 불법으로 취업하였다.

1990년대는 3D업종 인력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급증하자 중소기업체에 이주노동자 채용을 합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취업 금지원칙을 고수하면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3D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2월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여도 불법취업외국인이 계속 증가하였다.¹⁶²⁾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그들과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문제, 노동문제 등에서 발생한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드러났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다. 당시 심각해진 문제상황을 깊이 인식한 교회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가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 동아시아 집행위원인 백월현이 1991년 11월부터 하월곡동 밤골에서 탁아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161) 유길상·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4~17쪽.

162) 3D업종 인력난이 심해져도 외국인은 ‘연수’ 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자 사업주들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유입도 급증하였다.

이주노동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백월현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 임금과 산업재해 문제를 당했을 경우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었다.¹⁶³⁾

백월현은 1991년 12월부터 필리핀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점들을 1992년 5월 7일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체류상황, 주로 취업하는 직종과 산업, 연령과 성별, 입국경위·사유와 함께 그 외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임금과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조건, 식사 등 생활환경, 체불임금 문제, 빈번한 직장이동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회에 대한 지원요청사항으로 홍보, 전담상담실과 상담원, 휴식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담사목자가 없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었다. 착한 목자수녀회의 필리핀인 메리 앤 테레날(Mary Ann Terenal, R.G.S.) 수녀가 담당주교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고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 받기로 하였으나,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2. 산발적인 지원과 본격 사목활동 요청

과달루페회 멕시코 선교사들이 사목하던 자양동성당에서 외국인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자, 700여 명의 필리핀노동자들과 안산에서 온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참례하였다. 구로1동성당(현재 구로본동성당)은 일요일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개설하여 15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를 함께 보러 가거나 박물관에 데리고 가는 등 문화적인 교류로 확대하였다.¹⁶⁴⁾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하였다¹⁶⁵⁾. 그

16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자.

1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5월 7일자.

165)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노동자를 한국의 모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공장 투입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이주노동자를 일정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 부족을 간접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수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수인원은 생산직노동자 10% 범위 내에서 50명 한도로 설정하였으나, 1994년부터 1년 원칙 100명 한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전까지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산업기술연수를 법무부훈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부터 1992년 8월까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해외투자, 기술제공, 설비수출관련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서만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술이전과 같은 연수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내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의 편법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한편, 불법취업자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하여지자¹⁶⁶⁾, 정부는 1992년 6~7월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신고토록 하여 불법취업자·사용자의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사업주 책임으로 12월 말까지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한시적 국내체류를 허용하였다.¹⁶⁷⁾ 1992년 9월부터 외국인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10개 3D업종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으로 1만 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의 체류기한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도록 허용한 뒤 1994년 5월 31일까지 네 차례 동안 출국기한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1992년 12월 31일까지 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후 강제로 추방하여도 불법체류자가 남고, 향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⁶⁸⁾ 노동사목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문을 띄우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임시로 거주할 집과 실무자를 두어 상담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자 하였다. 1992년 5월에 백월현이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주노동자 문제를 진언하자, 김수환 추기경이 노동사목위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답변하여 노동사목위원회가 1992년 6월 30일자로 예산을 서울대교구에 요청하였다.¹⁶⁹⁾

166) 1991년 11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인 해외투자기업에만 집중되어 이 제도는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을 겪던 중소기업에게 외국인력을 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167) 신고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68,000명의 90%인 61,126명이었으며 제조업분야 47,000명(전체 69%)을 출국 유예조치시켰다.

168) 백월현의 보고, 1992년 7월 9일자.

16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9일자.

3. 이주노동자상담소 개소

1) 상담소 개소와 활동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방문한 필리핀 이주사목담당 아킬라스 대주교

이주노동자사목을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교회는 1992년 8월 27일에 중구 저동 1가 27-2번지에 있는 노동문제상담소 3~4층에 이주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하여 소장에 백월현(리디아), 지도신부에 도요안 신부를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이주사목을 수행하였으며¹⁷⁰⁾, 서울대교구가 운영비를 지급하였다.

필리핀·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중국·유고·나이지리아·가나 등의 이주노동자들은 동료소개로 방문하거나 통역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상담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구타문제, 의료문제, 출입국문제 등 광범위하였다. 또 문화생활에도 관심을 기울

1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여 한글교실과 컴퓨터의 운영, 야유회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였다. 또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상담하여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상담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2년 9월 10~12일에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역사·문화·관습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힘들게 느끼는 점을 파악하며, 한국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소개함으로써 서로 이해하도록 노동사목회관에서 추석잔치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¹⁷¹⁾ 1992년 10월 11일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가 서강대학교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약 3,000명이 참석하고, 44팀에 60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였다.

자양동, 구로3동, 안산의 원곡성당에서 1992년 10월 18일에 필리핀노동자 미사가 끝난 뒤 약 1,100명의 필리핀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부도회사의 체불임금, 사용자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한 송금, 산재 등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어 필리핀에서 아시아지역 이민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비교토론회가 1992년 11월 19~20일에 개최되었는데, 한국은 민변 변호사와 프라도수녀회의 정순옥 수녀가 참석하였으며 오 테레사 수녀가 통역하였다.¹⁷²⁾

2) 본격적인 상담활동

이주노동자상담소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이고 의료적인 혜택을 주었다. 1993년 1월부터 1,334건을 상담하였는데, 네팔(392), 방글라데시(289), 필리핀(274), 파키스탄(137) 순으로¹⁷³⁾ 상담내용은 임금문제(633), 출입국문제(144), 의료 및 산재(83) 등이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건강문제는 의료기관에 연결하였다. 1993년 1월부터 6월까지 97명의 노동자들에게 무료 혹은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게 하여 45명이 요셉의원, 나머지 52명은 성가복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산재환자 63명은 회사와 협상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체불임금으로

17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17일자.

172) 같은 회의록.

173) 필리핀인들이 적어진 것은 이들 공동체 사람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상담실에서 최창무 대주교

585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 5~6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다수 있었다. 출입국문제는 255명으로 출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60% 이상은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30%는 벌금문제에 관계된 일로 상담소가 고용주들을 설득하여 벌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3) 관심과 배려 촉구

외국인상담소는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이고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권익을 보호하여 주도록 후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에 비례하여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빈번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교회는 이주노동자실태를 조사하고 정부당국자들과 기업주들, 모든 국민을 향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을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대아적(大我的)인 견지에서 같은 형제들로 받아들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29일자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표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명서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는 보편적 형제애에서 이주노

동자 문제를 접근할 것을 역설하면서 사심 없는 선의의 모든 이들, 특히 정부당국과 고용주들에 대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아적 연대의식에 기초한 보편적 형제애를 호소하였다. 또한 정부당국자에게 산재, 임금체불, 사내폭행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보호대책을 요청하였다.¹⁷⁴⁾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수탈 등 억압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교회와 사회단체들의 대응도 점차 늘어났다. 즉,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주노동자피난처’의 길재오 전도사 등이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호소문과, 경실련에서 제시한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의 개최를 호소합니다』¹⁷⁵⁾를 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¹⁷⁶⁾

이주노동자상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이 인정되기 위한 문안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준비하여¹⁷⁷⁾ 1994년 1월에 인천교구 이주노동자상담소와 공동명의로 제출하였다. 이 문안은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운데 일부조항을 선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과,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를 기술연수비자로 전환하기로 한 당정합의에 대한 환영과 함께 유관부처들의 의미 있는 발전적 합의를 촉구하였다.¹⁷⁸⁾

상공부장관 추천 기술연수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1993년 4월에 이 제도의 시행을 중단하고¹⁷⁹⁾, 1993년 11월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¹⁸⁰⁾에서 기존의 산업

174) 부록 3에 전문 수록.

175) 부록 3에 전문 수록.

176) 경실련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와 인권문제 대책을 논의할 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실련에 소속된 사람이 찾아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모임에 참가할 의사가 있으니 이주노동자상담소도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일단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낸 뒤 추기경 비서실에 알아본 결과 김수환 추기경은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SBS가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문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산재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자도 5인 미만의 직장에서 일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산재법개정 담당기관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당시 농성하던 이주노동자 가운데 그동안 이주노동자상담소와 상담하고 관계한 외국인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도 중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177) 1994년 1월에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시 경실련에서 있었던 이주노동자 농성사태의 여파로 보류되었다.

178) 부록 3에 전문 수록.

179) 이미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종전의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180) 재정경제원 경제기획국장,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관리국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과학기술처 인력정책관이 ‘위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 제4국 1단장, 경찰청 외사관리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장이 ‘참여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기술연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업종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28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는데(법무부 훈령 제294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를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로 변경하였다.¹⁸¹⁾ 또한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업종과 규모, 연수시간 등 핵심내용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업종은 10개 업종에서 21개 제조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수기간도 최장 1년에서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노동부는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충원실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기협)로 위임된 점이다.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의 모집·알선·연수, 사후관리를 담당하였는데, 1994년 1월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을 제정하여 연수생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2001년까지 계속하였으며, 중기협 주관으로 1994년 5월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¹⁸²⁾ 그러나 제도, 운영의 한계로 이주노동자 관리에 대한 난맥이 표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이 요청되었다.

교회는 1994년 국회 국정감사 때 교회 외국인상담소들이 민주당 신계륜 의원에게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건의하여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였다. 즉,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의 각 외국인노동상담소가 공동명의로 제출한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기」¹⁸³⁾에서 임금수준, 산재, 송출과정에서 빈발하는 중간착취에 대한 보호장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문제로 그들의 인격보호문제 등을 거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1994년 12월에 교회 외국인상담소들이 노동부, 상공부, 법무부에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라는 공문으로

181) 여기서 주무부처의 장은 상공부(후에 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로 명칭변경)이며, 1996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주관업무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으로 이양되었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9월 19일에 연수대상업종, 송출국가선정,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단, 송출기관, 연수생, 연수업체,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이 지침으로 1996년 9월 19일에 제정된 이후 모두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1년 6월 1일에도 개정되었다.

182) 유길상·이규용, 같은 책, 2001, 19~20쪽.

183) 부록 3에 전문 수록.

발송하였다.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등의 외국인노동상담소 공동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서 연수생들이 입국하여 노동할 때 파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기획단에서 작성한 연수생의 연수계약서와 연수업체의 운용요령을 중심으로 현실에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하였으며, 이 제도가 시급히 전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¹⁸⁴⁾

4. 본격적인 활동전개

1) 주요업무와 대안제시

이주노동자상담소의 구체적인 업무는 첫째, 고충상담으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도와주었다. 둘째, 조사연구는 상담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고충을 입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셋째, 문화사업은 한글교실, 세미나 개최, 고적답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넷째, 의료상담은 개인적인 질병을 호소할 때 가톨릭기관의 자선병원과 뜻있는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섯째, 기타상담은 법무부 출입국관계, 송금문제, 기타 제반문제 등을 상담하였다. 여섯째, 컴퓨터운영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단기·장기요양 혹은 휴양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 곳을 제공하였다.



작업 중인 외국인노동자

1994년 5월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기술연수생·자진신고자·불법체류자 등으로 구분되었다. 중국동포·필리핀·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

184) 의견서와 의견서에 따른 해설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랑카·미얀마·인도·인도네시아·타일랜드·나이지리아·가나 등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다. 당시 주로 제기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담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호소하여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체불관계는 회사가 도산될 경우에 기업주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한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대책이 없었다. 둘째,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법에 따라 보호하여 주겠다는 행정지침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영세사업장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송금방법이 없고 합법체류자일지라도 절차가 까다로워 암시장에서 환전하거나 송금브로커들을 통하여 처리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등 직접 사목활동을 하여야 한다. 당시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를 자양동에서 봉헌하였으나, 장소도 비좁고 인력도 부족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기타 국가에서 온 신자 혹은 가톨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개신교는 많은 교회들이 영어로 예배하고, 예배를 전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많은 필리핀 신자노동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개종하였다. 둘째,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원칙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었다. 외국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종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담실, 문화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등 인성개발을 위한 공간이 요청되었다.¹⁸⁵⁾

비인간적인 대우에도 전혀 줄지 않고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의 원인과 상황을 제시하고 신중하고도 적절한 대책이 요청되었다. 즉,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노동자상담소의 1994년 9월 27일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본국 송금문제, 기술연수생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출국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상세히 지적하면서, 출입국관리정책과 노동정책의 분리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⁶⁾

18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4년.

186) 위와 같음.

2) 네팔노동자 농성사건

‘산업기술연수제도’가 1994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남아시아 15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은 본인부담으로 1,200~1,500달러를 지불하였다. 연수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210~260달러를 받기로 하였으나, 연수생들은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의 연장노동을 하면서도 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주들이 송출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불하여 본인들이 직접 받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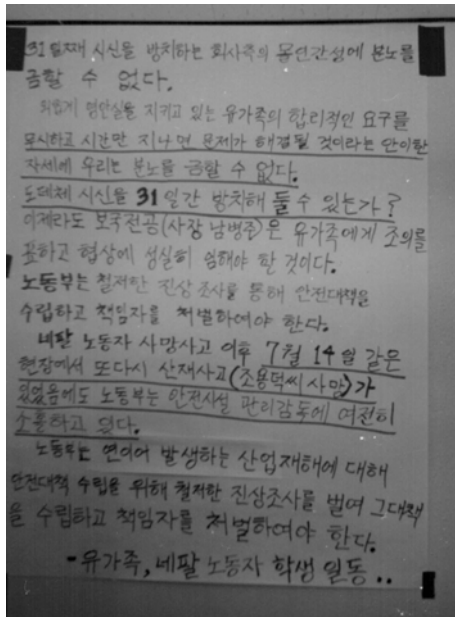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하자, 1995년 1월 9일에 네팔노동자 13명이 명동성당에서 송출업체와 회사의 구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하기 시작하였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자,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아졌다. 김수환 추기경도 농성장을 방문한 뒤 청와대에 전화하여 이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법무부와 노동부가 긴밀하게 움직였다. 1995년 1월 11일, 12일에 명동성당 주임신부와 구요비 신부 그리고 이태복 등이 노동부, 법무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와 농성을 도와주는 단체의 대표가 명동성당 ‘만남의 방’에서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농성자들은 임금 직접지불, 폭행금지, 체불임금 수령과 여권의 본인소지, 신원보장, 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정부대표들이 다음날 다시 만나기를 제안하였으나, 농성자 대표들이 임금지급과 정부의 공개사과 없이는 교섭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1월 13일에 교섭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명동성당 신부들과 위의 3인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위임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성자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농성자 대표들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거절하였다. 그 뒤 네팔대사가 한국에 왔고 1월 17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들과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농성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은 없고 당시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하루 종일 취조만 받았다.¹⁸⁷⁾

네팔노동자들의 농성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저들의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하지 마시오」라는 이주노동자인권에 대한 성명서를 1995년 1월 23일자 서울대교구 주보에 게재하였다.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지적하면서 국가와 기업주들의 반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¹⁸⁸⁾

18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월 19일자.

188) 부록 3에 전문 수록.



네팔노동자 대자보

네팔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은 여러 가지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산업기술연수생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 등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업기술연수생들에게 여권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출자유와 농성당사자들의 재취업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즉, 정부는 1995년 2월 14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 258호)을 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상의 강제노동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등 일부규정의 법적보호와 산업안

전보건법의 안전과 보건조치,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또한 1995년 7월 1일부터 국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액이 연수수당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여권은 여전히 기업주들이 가지고 있었고, 산업기술연수생의 외출을 허락지 않거나 외출할 때 3~4명의 회사직원이 따라다니기까지 하였다. 교회상담소들은 산업기술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여 노동부와 법무부, 상공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건의서 내지 성명서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3) 상담업무 확대

1995년에 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은 24개 나라에 총 1,039건이었는데, 방글라데시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파키스탄(182)·네팔(163)·필리핀(142)·스리랑카(123)·나이지리아(56)·인디아(45)·미얀마(40) 순이었으며, 자메이카·카메룬·몽골·프랑스·이디오피아·일본·잠비아 등은 각각 1건뿐이었다. 상담내용은 체불임금이 51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불법체류(217)·의료(94)·산재(62)·출국 협조(53)·기타(47)·쉽자리 제공(30)·항공권환불(21) 순이었다.¹⁸⁹⁾

1996년은 25개국에 총 944건의 고충상담이 접수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203건으로 가

장 많았고 스리랑카 131건, 방글라데시 130건 그리고 페루(121)·필리핀(92)·네팔(64)·나이지리아(38) 순이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분류해 보면 체불임금이 476건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의료(213)·출입국(82)·기타상담(71)·산재(65)·항공권(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997년은 총 34개국으로 출신국가들이 많아졌고, 상담건수는 총 1,154건으로 1996년보다 더 늘어났다. 페루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181)·파키스탄(158)·필리핀(119)·스리랑카(99)·베트남(7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은 임금문제가 653건으로 절대다수이고, 의료(179)·출입국문제(102)·산재(90)·기타(81)·항공권(33)·퇴직금(16) 순이었다.

4) 상담 이외의 활동

상담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고충을 입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며, 외국인상담소가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법률문제는 인권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다.¹⁹⁰⁾ 건강이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단기·장기요양 혹은 휴양이 필요한 이들을 하월곡3동에 있는 쉼터로 보내 1일 한도 2~5명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주일~7개월 동안 편히 쉴 수 있게 배려하였다.¹⁹¹⁾

또한 한글반을 운영하고, 해마다 설날(민속절)행사, 소풍(야유회), 추석 송편 만들기 등을 거행하였다. 문화행사 가운데 1995년 4월 23일에 개최된 이주노동자축제는 연례행사가 되었으며¹⁹²⁾, 1995년 1월에 명동성당에서 네팔노동자들이 농성하였을 때 노동사목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인권성명서 『저들의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하지 마시오』를 읽은 서울 페스티벌의 황성원이 자선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을 노동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10월 8일에 ‘이주노동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¹⁹³⁾, 1995년 10월 22일에 명동대성당 문화관에서 네팔노동자 800여 명이 네팔노동자축제를 거행하였다.¹⁹⁴⁾

18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1996년.

1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5년.

191) 위와 같음.

1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1997년 3월 13일자. 이주노동자상담소, 1996년 1~8월 보고서(1996년 9월 18일자).

19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10일자.

1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5년.

5) ‘이주노동자 보호법’ 개정요구

1996년에도 문제가 많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330~34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다.¹⁹⁵⁾ 1996년 5월 말에 서울대교구 각 본당에 ‘이주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명운동’의 서명취지와 서명용지를 보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률제정에 신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여 1996년 9월 18일 당시 46개 본당에서 2만 6천 명, 거리 서명 17,000명 등 약 4만 명이 서명하였다.¹⁹⁶⁾ 한편, 노동사목위원회는 1996년 8월에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이주노동자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관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로 ‘이주노동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제안하였다.¹⁹⁷⁾

이어 1997년 6월 25일에 노동사목위원회가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2천년 대화년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노동사목위원회가 입법 청원한 이주노동자 보호법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성명서는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밝히면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⁹⁸⁾

6)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사태

1996년에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명동성당 농성사태는 언론에서 보면 뉴스거리이고, 힘없는 자들에게 명동성당이 피난처로 상징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성당에 들어올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공노대는 명동성당에 진입하여 많은 것을 이용하였고, 명동성당 신부들도 성당이니까 신자

195) 홍화타이어에서 일하는 중국인노동자 72명이 외국인상당소에 편지를 보내 180달러 지급과 노예노동 등을 호소하여 이 문제를 국회와 노동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1월 11일자.

196) 이주노동자상담소, 1996년 1~8월 보고서(1996년 9월 18일자).

197) 부록 3에 전문 수록.

198) 부록 3에 전문 수록.

들을 위해 기본적인 것만 지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외노협은 노동사목위원회가 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는 사태를 계속 만들고, 노동사목위원회가 동참하거나 제안할 방법이 없도록 일을 처리하여 암담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노동사목위원회는 어렵더라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이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고용계약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이었다.¹⁹⁹⁾

5. 베다니아의 집



초기 베다니아의 집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의 쉼터인 베다니아의 집은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부터 하월곡동 밤골의 이민 노동자사무실로 개조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 11월 11일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강북구

19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6년 6월 21일자.

미아4동으로 쉼터를 이전한 뒤 12월 19일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명으로 베다니아의 집을 개소하였다. 베다니아의 집은 퇴원한 뒤 지속적인 통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거나 산업 재해를 해결하는 동안 쉼터가 필요한 사람, 출국을 앞두고 잠시 머무르는 경우 등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기거류가 필요한 이들이 활용하였다.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머무를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상호보완, 협조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많은 이들이 상담소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베트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조선족)·필리핀·나이지리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인도·태국·페루 등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의 모든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입소하여 무료숙식을 제공받다가 건강을 회복한 뒤에 노동현장으로 복귀하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6.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1992년에 착한 목자수녀회 메리 앤 테레날 수녀가 자양동 가톨릭 필리핀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첫 카달로그어 미사를 8명의 필리핀인들이 착한 목자수녀회 수녀원에서 봉헌한 이래 필리핀공동체는 성장하였으며, 『Sampaguita』라는 소식지를 발간하였다.²⁰⁰⁾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질병, 여권압류, 체불임금 등이 주로 상담되었는데, 여권압류와 체불임금 등이 가장 많았다.²⁰¹⁾

한편, 자양동성당에서 약 2,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메리놀외방선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성당정원이 500명이어서 혼잡하였으므로 메리 앤 수녀가 종로성당에 필리핀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종로성당 정원이 300명이므로 1,000~1,500명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신설하는 것은 미사를 한 대 더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종로성당과 회관의 전체상황에서 보아야 하고, 종로성당은 성당

200) 이에 앞서 한국메리놀외방선교회 게리 해몬드(Gerry Hammond, M.M.) 신부가 1990년에 필리핀외방선교회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첫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필리핀외방선교회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레오닐로 파쿠리봇(Leonilo Pacuribot), 고르고니오 루빗(Gorgonio Lubit), 롤란도 데테라(Rolando Detera) 등 4명의 신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1992년 9월에 필리핀외방선교회 사제 두 명이 두 명의 신학생과 함께 한국에 파견되었다. 두 사제는 레스티투토(Restituto Galang, M.S.P.) 신부와 글렌 조반니 자론(Glenn Giovanni Jaron, M.S.P.) 신부였으며, 신학생들은 이시드로 알림부용(Isidro Alimbuyong)와 세르지오 봄팻(Sergio Bompat)으로 신부가 되었다.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Alvin B. Parantar, M.S.P.) 신부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보고서.

20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9일자.

과 회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까지 온다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봉헌은 실현되지 않았다.²⁰²⁾



글렌신부(왼쪽)와 도요안 신부

1993년에 게리 마르티네즈(Gary Martinez)를 자양동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레스티 갈랑(Resty Galang, M.S.P.)이 초대 담당신부가 되고, 소식지 이름을 『Kayunanggi』로 바꾸었다. 1994년에 서강대학교에서 'Hatid-Saya, Alay-Kapwa'라는 모금활동을 개최하였는데, 많은 필리핀노동자들을 자양동공동체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에 조시 마르티네즈(Josie Martinez)를 통하여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에 'Alliance of the two Hearts'가 소개되었으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철야기도를 하였다.²⁰³⁾

한국에 체류하는 필리핀노동자들이 날로 증가하자 1996년에 '엘 샤다이 기도 협력자'(El

Shaddai Prayer Partner) 조직을 통하여 대림동 필리핀 공동체가 조직되었으며, 살레시오회관에서 살레시오수녀회 미겔라 산티아고 수녀(Mikaela Santiago, F.M.A.)의 도움으로 구숙주회 윌리 제센나(Willy Jesena, C.S.S.R.) 신부가 필리핀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²⁰⁴⁾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자 필리핀외방선교회가 1995년부터 담당하고, 자양동성당에서 매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서울대교구가 1996년 10월 18일에 혜화동성당에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혜화동성당 주임 염수익(廉洙義, 요셉, 1949~) 신부가 이를 받아들여 11월 8일에 필리핀사목담당 경안정(Resty) 신부와 미사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주일 오후 1시 30분 미사장소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가톨릭의사회와 적십자병원 팀이 협력하여 1997년 3월 2일부터 필리핀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실을 개원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5월 23일에 가톨릭대학으로 이전하였다.²⁰⁵⁾

2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17일자.

203)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Alvin, M.S.P.) 신부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보고서.

204) 같은 보고서. 대림동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는 혜화동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지역 공동체 소속이었다.

✠ 제11절 노동사목회관

1. 노동사목회관 교육 프로그램

1) 노동법 강좌



노동법 수료식

1987년 4월에 종로성당 건물이 완공되어 이 건물 3, 4층을 노동사목회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일정표에 따라 우선 이용하고, 교회의 노동관련 활동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노동조합이나 인쇄노동조합 등 일반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개방하는 등 각종교육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하였다.²⁰⁶⁾

205) 백동 70년사 편찬위원회, 백동 70년사, 천주교 혜화동 교회, 1997년, 295쪽.

206) 종로성당 건물의 규모는 총 716.58평으로 종로성당은 지하(158.69평), 1층(148.55평), 2층(58.37평), 5층(99.01평) 등을 사용하며, 노동사목회관은 2층(12.50평), 3층(115.00평), 4층(125.00평) 등을 사용하였다.

1987년 6·29 이후에 노동운동단체들이 노동사목회관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²⁰⁷⁾ 그러나 노동사목회관이 들어선 지 1년이 넘도록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였다. 회관담당신부가 종로본당까지 맡아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사목위원회에 교육분과를 설치해 노동자들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도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사목회관에 노동법강좌를 개설하였다.²⁰⁸⁾

노동법교육을 통하여 기초를 다진 뒤에 노동자들이 철학·역사·사회문제 등을 요청하면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각자의 직장, 가정생활, 교회활동 등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할 때 강좌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패널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통하여 현장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실무는 노동사목회관이 추진하지만, 주관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가 담당하였다.²⁰⁹⁾

1990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 8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회, 노동조합법 4회 등 약 4개월간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강좌에 38명이 신청하여 1990년 3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4개월 동안 교육하여 13명이 수료하였다.²¹⁰⁾ 그런데 실무자의 교육준비가 다소 미비하였고 관심도도 낮아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회관문을 닫아 수강생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노동사목회관에서 계속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장소제공 이외의 실무들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법프로그램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²¹¹⁾ 또한 노동법교육에 일반노동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가톨릭노동장년회·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가톨릭노동장년회·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대개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하여 노동조건이 열악하였기 때문이다.²¹²⁾ 이 노동법강좌는 문제를 계속 보완하여 해마다 시행하였다.

20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1일자.

208) 같은 회의록.

20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9월 10일자.

21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7월 12일자.

211) 같은 회의록.

2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1년 7월 11일자.

2) 사회교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성 바오로 딸 수도회가 사회교리 테이프 제작에 협조를 요청하여 효율적인 구성과 청취자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제작원고를 고증하고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테이프의 내용은 세계와 한국의 산업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노동운동과 교회의 목소리를 『새로운 사태』와 『사십 주년』에 비추어 다큐멘트 중심으로 배경키로 하고, A면에 세계노동사와 노동관계, B면에 한국의 노동문제를 넣기로 하였다.²¹³⁾



역사기행

노동사목회관은 1989년부터 사회교리 연수회를 1월 30일의 ‘사회적 관심 연수회’부터 시작하여 4월 24일의 ‘사회적 관심 1차 워크숍’과 5월 22일의 2차 워크숍, 7월 4일의 ‘교황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해설’, 1990년 10월부터 1991년 5월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토론회까지 매월 1회씩 노동현장 워크숍, 1991년 7월 ‘노동하는 인간’ 워크숍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한편, 노동사목회관은 풍물강습을 개설하고, 노동자에게 개방된 떼제기도회를

21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10월 31일자.

개최하였다.²¹⁴⁾ 1993년에는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 한자반, 기타반, 영화반 등을 계속 시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교육참여자들은 까다로운 이론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풍물과 같은 문화교육은 수강자가 넘치는 실정이었다.²¹⁵⁾

2. 노동사목회관의 대관(貸館)

노동사목회관은 일반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회관의 대관은 무료대관과 무료이용, 유료이용으로 구분하였다. 노동사목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무료대관, 등록된 단체들은 무료이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1순위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노동사목위원회와 노동사목회관에 등록된 단체이고, 제2순위는 종로성당 단체가 해당되었다. 유료이용은 주요 노동조합 등이었다.²¹⁶⁾

1993년부터는 회관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지 않고 모든 사회단체, 교회단체, 지역사회단체에 대관업무를 개방하였다. 따라서 재정문제는 교구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대관범위를 넓히도록 하여 전년대비 수입이 약 20% 늘 것으로 기대되었다.²¹⁷⁾

3. 노동사목회관의 역할문제

1) 노동사목회관 계약서

노동사목회관이 종로성당에 있으므로 원활히 운영하고 시설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종로성당과 노동사목회관 그리고 노동사목회관과 교구 간의 명시적인 계약서가 필요하고, 노동사목회관의 설립역사와 운영에 맞는 세부적인 규약이 포함되어야 하였다. 종로성당에 노동사목회

21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활동보고서 1992년 2월 6일자.

21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8일자.

21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5년; 1996년.

21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2월 25일자.

관이 입주한 경위와 배경을 보면, 서울대교구장과 종로성당 주임신부의 뜻이 우선되었으나, 교구에서 회합할 때 담당주교가 종로성당과 노동사목회관이 한 건물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위치한다고 하명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에 노동사목회관의 대관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재정수입이 적어 직원급여와 회관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담당주교가 종로성당의 혼인미사와 시설임대료 등을 노동사목회관 수입으로 사용하기로 잠정적으로 하명하였다. 또한 당시 담당주교와 면담에서 정치성을 띠지 않는 노조와 노동관계단체들에 대한 임대는 묵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정치성’이라는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교구와 연락하여 결정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²¹⁸⁾ 그런데 대관제한을 해제하여 외부단체의 사용이 빈번하여지자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단위조합이나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등과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통보를 관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²¹⁹⁾

2) 노동사목회관 사용문제

노동사목회관 4층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사무실이 있었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회합할 때마다 회관 3, 4층을 사용하였는데, 장소사용 문제로 가끔 갈등이 생겼다. 예를 들어,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는 회원들이 을지로 집을 자유롭게 이용하였지만, 사무실이 노동사목회관으로 이전하면서 4층 회합실만 북부연합회 사무실이고 3, 4층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해 하였다. 특히 노동사목회관에 ‘회관사용에 대한 기본규정’이 있었는데, 이전까지 자유롭게 회관을 사용해 오던 습관이 있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회관사용 규정을 무시하면서 충돌하였다.²²⁰⁾

21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9년 10월 31일자.

21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2월 25일자.

220)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회장과 회관담당자, 관리인, 종로성당 주임신부 등이 장소사용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있는데, 12월 31일 노동자의 밤 행사 때 새벽 4시에 풍물을 친다고 당일에 통보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만, 새벽 4시에 풍물을 치는 경우 위의 사제관, 수녀원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사전에 이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어서 종로성당 주임신부가 거절한 적이 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또한 가톨릭노동장년회를 배우기 위하여 홍콩팀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을 때 30명이 안 되어 거절을 당하였는데, 정작 사용하여야 하는 노동자가 회관 실무자의 재량에 따라 거부당하자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7월 12일자.

관장신부와 지도신부, 임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므로 노동사목회관과 교구, 종로성당,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4자가 만나 약정서를 만들기로 하였다.²²¹⁾ 이어 1990년 7월 11일의 노동사목 사제모임에서 노동사목회관과 북부연합회의 장소사용문제를 토의하였는데, 북부연합회 지도신부가 책임지고 약정서를 만들고, 약정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교구와 협의하며, 교구와 협의할 때 위원장 신부가 도와주기로 하였다.²²²⁾

이 약정서 문제는 1990년 8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와 회관 사이의 약정서를 김현배 신부와 정월기 신부가 만들다가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지도신부 겸 노동사목회관 담당자인 서춘배 신부가 처리하였다. 또 서춘배 신부가 노동사목회관 이용 안내문²²³⁾을 만들어 노동사목회관 사용의 우선순위를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장년회 등과 노동사목위원회 정기행사 등으로 제시하였다.²²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3년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노동사목위원회, 종로성당 등이 시간을 나누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²²⁵⁾

3) 노동사목회관 이전



왼쪽부터 정웅모 신부, 도요안 신부, 장덕필 신부, 구요비 신부

1995년에 종로성당 정웅모 주임신부가 노동사목회관은 대관수입이 있으므로 재정자립이 바람직하고, 노동문제상담소나 외국인상담소 등을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²²⁶⁾ 이와 함께 노동사목회관이 종로성당과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자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었다.

2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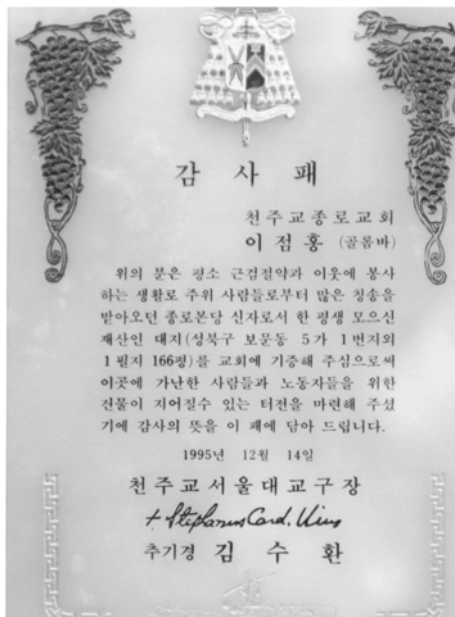
2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7월 12일자.

22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11월 8일자.

2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0년 9월 13일자.

22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3년 2월 25일자.

2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30일자.



마침 종로성당 신자가 성북구청 맞은편의 170평 대지를 기증하여 노동사목회관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 건물은 주로 노동사목회관이 사용할 예정이며, 노동문제상담소와 이주노동자상담소도 입주하고, 그밖에 교정사목위원회나 빈민사목위원회도 입주해 사회사목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내부시설은 주교와 사제, 수도자, 모임지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장소, 혼인장소 등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지는 기증되었지만, 건축비로 40억 원 정도 필요하여 담당주교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계속 의논하였다.²²⁷⁾



대지 기증자(이점홍 골룸바)

이 회관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성화달력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²²⁸⁾, 약 30,000부를 판매하였으며, 회관소개를 담은 팸플릿도 제작하였다.²²⁹⁾ 달력 제작은 1996년과 1997년에도 계속하고,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건립 기도문’을 작성하여 노동사목위원회에 속하는 모든 이들이

노동사목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기도하였다.²³⁰⁾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건립은 1996년 12월에 들어서서 노동법 날치기 개정 등과 관련한 노동문제가 발생하여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당초 지하 4층·지상 7층을 계획하였는데, 옆

22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7월 6일자.

22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15일자.

22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10일자.

23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11월 6일자.



기공식

므로 계속 건립업무를 추진하였다.²³³⁾ 1997년 6월 22일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와 노동사목회관 관장 정웅모 신부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노동사목회관 건립 취지문’을 보면, 독립건물로서 노동사목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회관을 갖추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대회년인 2000년에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다.²³⁴⁾

의 건물이 지하 1층밖에 안 되는 불법 현대건물이어서 지하를 깊게 팔 경우, 주변 집들의 보상문제가 심각하여지므로 건물의 규모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³¹⁾ 그러나 다행히 대지의 지질이 양호하다고 판정되었다.²³²⁾ 또한 보문동지역이 1997년 9월 하순에 도시개발지구로 확정되면서 3년 이내에 건축하여야 하

23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1월 16일자.

2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3월 13일자.

23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7년 9월 11일자.

234) 부록 3에 전문 수록.

✻ 제12절 요약과 평가

1. 요약

노동사목위원회가 도약을 시작하던 1987년부터 10년간은 정치적으로 '6·29'로 대변되는 민주화를 향한 격동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의 열기는 김영삼 문민정부와 그 뒤 김대중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는 변화·개혁의 시대로 표출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30년간의 중앙집권적 통제·관리경제 체제에서 점차 각종규제완화를 포함한 자율·개방의 시대로 나아갔다. 물론 급격한 변화시도가 상당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하여 1997년의 IMF외환위기를 낳고 말았지만, 88올림픽 이후 민족적 자신감 회복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민주화의 열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억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극한적 노·사 대투쟁의 양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동관계법제에 대한 거부와 재개정 요구는 전국적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의 방향모색은 후속법제 정비작업에 의미 있는 토대가 되었다.

격동의 시대환경 속에서도 한국가톨릭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러한 교회의 발전에서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엄청난 시대적 변화·혼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동관련 현안쟁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끊임없이 학습·연찬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이나 1987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사회적 관심』 등과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단히 연구하고 그 정신을 되새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종 노동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노태우정권에 대한 민주화 추구와 노동법 개정요구, 평화신문·평화방송사태 대응, 철도·지하철(전기협)파업사태 대응, 공노대사태 대응,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판과 시정추구 등은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하면서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노동사목위원회의 부단한 활동·노력이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양성활동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를 담당할 사제를 육성하고 노동사목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사제·신학생 연수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고

철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시도함으로써 조금씩 나아지는 양성과정의 되고자 노력하였다. 프라도수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녀분과의 수도자 양성활동도 충실하게 계속되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에 동반자로서 소임에 충실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심각한 도전·위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일반노동계가 주로 취하였던 ‘힘의 대결구도에 의한 빠르고 가시적인 승리쟁취’라는 계급투쟁적 활동방식과 달리,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실천을 통한 복음화 그리고 노사대화를 통한 점진적 문제해결’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동계·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의 ‘정체성 위협’에도 동요되지 않고 복음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회원도 많았지만, 교회의 정신·가르침보다 노동·학생 운동권의 이념과 투쟁방식을 추종·주장하는 회원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회원들과 지도신부들에 의하여 노조설립과 민주노조로 변화라는 가시적 성과도 상당수 도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종래의 위상·활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강화 작업에 매진하였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의 개최, 변화된 상황의 인식·적응에 대한 토론회 개최, 각종 조사연구와 연수회 등 행사를 통한 조직확장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시아지역·CIJOC·세계청소년대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 역시 철저한 반성을 통한 재도약을 도모하였다. 분출하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오히려 ‘내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위의 동료들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회 조직을 갖추고 회지를 발간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전개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 개최된 국제총회에 참석하고, 동아시아지역 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 시기의 국제적인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제어린이사도직(MIDADE-IMAC)이었다. 프라도수녀회가 인근지역 노동자들의 어린이들을 동반하면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았으며, 연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총회에도 참석하면서 회원수의 확대는 물론 그 위상을 조금씩 높여 나갔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국제어린이사도직이 노동사목위원회와 성격을 같이하는 점에 주목하고 노동사목위원회가 정례회합과 지도를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6·2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욕구에 따라 노동문제상담소의 역할도 다양하고 활력 있게 전개되었다. 명동노동문제상담소는 깊이 있는 상담과 교육활동을 전

개하였으며, 김말룡 소장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임한 뒤에는 노동사목위원회 산하기구로 편입되어 개선작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한평생 노동운동을 위해 헌신한 김말룡이 갑자기 선종한 것은 노동계뿐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조차 커다란 손실로 기억될 것이다. 이외에 구로본동, 구로3동, 창동, 시흥동노동문제상담소와 까르딘청소년상담소도 계속 상담활동과 노동법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1992년부터는 명동 등 일부 노동문제상담소의 상담건수와 교육 참가자들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한편, 상담내용의 주안점 등 기능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음으로써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체계를 변화시켰다. 한편, 급변하는 교회 내·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기 위한 실무자모임도 지속 개최하여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인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해 온 노동사목위원회의 활동영역이기는 하지만, 더욱 체계적·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 노력이 이 시기에 적극 시도되었다. 먼저, 본격적인 산재사목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와 논의하였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연찬하였고, 산업재해노동자회의 주요간부들을 초청하여 산업재해의 사례와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듣고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산재사목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실무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88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 그리고 국내노동자들의 3D업종기피 현상으로 1990년대에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서울대교구에서는 종전의 산발적인 지원과 사목활동을 전면 재점검하고 1992년부터 이주노동자상담소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점차 상담에 임하는 이주노동자의 수와 대상국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3년부터는 더욱 적극적·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보호법의 제·개정 요구를 포함한 각종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과 그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 주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또 상담활동 외에 조사연구와 법률구조사업, 베다니아의 집과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운영, 각종 문화사업과 행사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1987년에 종로성당 건물이 완공되면서 3, 4층을 회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법강좌를 포함한 사회교리와 각종 문화교육, 대관사업 등 기능확대와 위상제고로 인하여 점차 심각한 공간적 한계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활동단체와 협의과정과 지침 등 조정노력도 기울였지만 1995년에 독립건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마침 종로성당 신자의 회사

로 보문동에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여 노동사목회관 건립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 평가

1987년부터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노사관계·노동법제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도 일정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 교회와 노동사목위원회의 노동참여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화를 지향하는 총체적 변화의 시기에 노동사목위원회와 각 활동단체는 달라진 환경을 적극 이해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였다. 각종교육·학습 등을 통한 양성활동,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장년회의 재점검, 국제어린이사도직을 비롯한 국제활동과 노동문제상담소의 활성화,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체계적 대응 그리고 노동사목회관의 이전준비 등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긍정적 노력의 발자취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교회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도전도 없지 않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철저한 자기성찰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경우, 일반노동운동권과 학생운동권의 이념적·계급투쟁적 도전에 일부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철저한 자기반성과 내실화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노동문제상담소도 한 때 최고조에 달하던 기능·위상의 위축, 재정적 한계에 대응하여 체제변화를 과감히 모색하였다.

셋째, 1987년부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증진·강화하였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사목영역을 계속하여 발굴하는 개척정신을 발휘하였다. 일거에 폭발하는 노동자들의 억눌린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활동은 물론,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성찰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내 노동상담소의 역할·위상 변화에 대응하여 산재사목과 이주노동자상담소를 적극 개설·운영하였다. 기초입문 수준의 노동법강좌를 더욱 심화시켜 전문적·체계적으로 노동법을 교육하고, 각종문화강좌를 적극 개설하였다.

넷째, 이상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아쉬운 측면 역시 없지 않은데,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더욱 전문적인 국내노동사목영역의 개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한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의 제시’라든지, 일반인·초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사회교리 강좌를 더욱 ‘체계화한 교회의 지도자 급까지를 포함하는 노동관계 제반분야·사회교리 강좌를 정례화’하지 못한 것도 못내 아쉽다. 또 산재사목의 체계화·전문화를 더욱 일찍 서둘러 ‘진폐증 등 난치성 직업병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